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대선토론에서 후보자의 설득전략이 유권자의 후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유튜브 실시간 채팅의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 솔

대선토론에서 후보자의 설득전략이 유권자의 후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유튜브 실시간 채팅의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우 지 숙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9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 솔

전솔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고 길 곤 (인)

부위원장 이 진 수 (인)

위 원 우 지 숙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튜브에서 중계된 2022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방송토론의 후보자 발언과 유권자들의 실시간 채팅 기록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기능이론에 따라 후보자들의 설득전략을 주장, 공격, 방어로 분류하고, 전략에 따른 유권자들의 반응을 유형화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설득전략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 모두 주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번 선거는 양 정당 모두 사전에 후보자에게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성숙한 토론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유권자 사이에서도 상대 정당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대한 공격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둘째, 공격 전략 중에서는 비평이 비난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후보들은 공격과 방어를 주장보다 적게 사용하였는데, 유권자들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공격이나 방어보다는 주장을 많이 사용하였고, 공격 발언을 사용할 때는 비평을 주로 사용하면서 부정적 반응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선행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도 유력후보보다는 차순위후보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비유력후보는 공격을 거의 하지 않았다. 양 정당 모두 유력후보의 지지율을 적극 관리하는 분위기였고, 차순위후보들의 공격발언에 유권자들이 화답하지 않으면서 비유력후보들도 소극적으로 토론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넷째, 방어 전략은 유력후보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각 정당의 유력후보자가 주로 사용한 방어 전략 유형의 차이는 있지만, 전략 선호도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후보들은 방어 전략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가능하면 주장을 사용하여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설득전략에 주장, 공격, 방어의 순서로 반응을 나타냈다. 후보들의 공방전이 벌어지는 시점에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토론이나 격렬한 감정반응이 관찰되면서 공격이나 방어에 대한 반응이 증가할 것으로 짐작하였으나, 이번 토론에서 모든 후보자가 주장 중심의 발언을 많이 사용하면서 유권자들의 반응도 후보자가 많이 사용한 설득전략 빈도에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섯째, 후보자가 사용한 방어 세부 전략과 유권자들의 반응 양상에 차이가 있었지만 일관된 경향을 보이진 않았다. 또한 같은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후보자에 따라 유권자 반응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후보자를 둘러싼 토론 상황이나 후보자의 토론 태도 등의 요인이 유권자의 반응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채팅에서 유권자들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반응들이 있었지만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유권자들은 응원전 형태로 반응을 나타냈다. 실시간 채팅에 게시된 반응의 수가 워낙 많고, 속도도 빨라 대화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를 통제하거나, 댓글을 분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선거방송토론, 설득전략, 유권자 반응, 유튜브, 정치대화
학 번 : 2013-21911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 2 장 연구의 분석틀을 위한 이론적 기초 ····· 3

제 1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3

1. 기능이론 ····· 3

1) 주장 ····· 4

2) 공격 ····· 5

3) 방어 ····· 7

2. 후보자의 설득전략 ····· 8

3. 정치대화 ····· 9

4. 유튜브 ····· 12

5. 정치참여 ····· 14

6. 유권자 평가와 반응 ····· 16

7. 정치대화 및 토론 참여자간 대화 양상 ····· 18

8. 의견 분위기 파악 ····· 21

9. 의견지도자 ····· 22

10. 숙의와 참여의 공존을 위한 후보자의 역할 ····· 25

제 3 장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 27

제 1 절 연구문제 ····· 27

제 2 절 연구대상 ····· 30

1. 더불어민주당 경선 ····· 35

2. 국민의힘 경선 ····· 37

3. 선거방송토론회 중계 특징 ····· 39

4. 분석대상 토론회 ····· 42
제 3 절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 44
1. 연구방법 ····· 44
1) 내용분석 절차 ····· 44
2) 분석유목 ····· 46

제 4 장 연구결과 ····· 53
제 1 절 연구결과 ····· 53
1. 후보자의 설득전략 차이 ····· 53
1) 더불어민주당 ····· 53
2) 국민의힘 ····· 63
2. 유권자 반응 ····· 74
1) 더불어민주당 ····· 74
2) 국민의힘 ····· 83
3. 토론회 특징과 주요 흐름 ····· 93
1) 더불어민주당 ····· 93
2) 국민의힘 ····· 99

제 5 장 결 론 ····· 106
제 1 절 연구의 요약 ····· 106
제 2 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 112
제 3 절 연구의 한계 ····· 114

참고문헌 ····· 116
Abstract ····· 129

표 목 차

[표 1] 더불어민주당 토론회 주요정보 ····· 31
[표 2] 국민의힘 토론회 주요정보 ····· 33
[표 3] 더불어민주당 선거방송토론 중계 특징 ····· 40
[표 4] 국민의힘 선거방송토론 중계 특징 ····· 41
[표 5] 분석대상 토론회 ····· 43
[표 6] 후보자의 설득전략 분석유목 ····· 47
[표 7] 유권자 반응 분석유목 ····· 48
[표 8] 후보자의 설득전략 분석유목 예시 ····· 50
[표 9] 유권자 반응 분석유목 예시 ····· 51
[표 10]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설득전략 ····· 53
[표 11]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세부 설득전략 ····· 54
[표 12]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주장-유권자 반응 사례 ····· 55
[표 13]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공격-유권자 반응 사례 ····· 57
[표 14]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방어-유권자 반응 사례 ····· 60
[표 15]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공격·방어대상 ····· 62
[표 16] 국민의힘 후보자 설득전략 ····· 63
[표 17] 국민의힘 후보자 세부 설득전략 ····· 64
[표 18] 국민의힘 후보자 주장-유권자 반응 사례 ····· 65
[표 19] 국민의힘 후보자 공격-유권자 반응 사례 ····· 68
[표 20] 국민의힘 후보자 방어-유권자 반응 사례 ····· 70
[표 21] 국민의힘 후보자 공격·방어대상 ····· 72
[표 22] 설득전략에 따른 유권자 반응(더불어민주당) ····· 74
[표 23-1] 후보자별 주장에 대한 유권자 반응 ····· 75
[표 23-2] 후보자별 주장에 대한 유권자 세부 반응 ····· 76
[표 24-1] 후보자별 공격에 대한 유권자 반응 ····· 77

[표 24-2] 후보자별 공격에 대한 유권자 세부 반응 ····· 77
[표 25-1] 후보자별 방어에 대한 유권자 반응 ····· 79
[표 25-2] 후보자별 방어에 대한 유권자 세부 반응 ····· 79
[표 26] 후보자별 방어 세부전략에 대한 유권자 반응 ····· 80
[표 27] 후보자 발언에 대한 유권자 반응 ····· 81
[표 28] 설득전략에 따른 유권자 반응(국민의힘) ····· 83
[표 29-1] 후보자별 주장에 대한 유권자 반응 ····· 84
[표 29-2] 후보자별 주장에 대한 유권자 세부 반응 ····· 85
[표 30-1] 후보자별 공격에 대한 유권자 반응 ····· 86
[표 30-2] 후보자별 공격에 대한 유권자 세부 반응 ····· 86
[표 31-1] 후보자별 방어에 대한 유권자 반응 ····· 87
[표 31-2] 후보자별 방어에 대한 유권자 세부 반응 ····· 88
[표 32] 후보자별 방어 세부전략에 대한 유권자 반응 ····· 89
[표 33] 후보자 발언에 대한 유권자 반응 ····· 90

그 림 목 차

[그림 1] 더불어민주당 9차 토론회 유권자 반응 점유율 … 81
[그림 2]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 ····· 82
[그림 3] 국민의힘 3차 토론회 유권자 반응 점유율 ····· 90
[그림 4]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 9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소셜미디어로 분류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및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소통이 가능한 채널도 다수 등장하였다. 특히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의 과정을 지켜본 세대가 성년이 되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참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의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자들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각 정당 후보들의 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후보자의 언행이 실시간 채팅 기능을 지원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채널을 통해 중계되어, 유권자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언론사를 통해 여과 및 요약된 정보를 본 유권자들이 언론사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남긴 댓글을 통해서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댓글을 쓰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댓글의 수도 적고 추천 수가 많지 않아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언론사마다 어느 정도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특정 정치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의 기사나 댓글에는 조작 및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유권자가 이용하는 언론사가 나뉘는 상황에서 각 언론사의 보도자료에 달린 댓글로는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시청률이나 조회수에 민감한 언론사로서는 토론회 이후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의 타당성이나 근거의 사실여부를 점검하는 보도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결함이나 사생활 문제를 보도할 유인이 더 크다. 또한 토론회 후 언론사가 2차 보도를 준비하는 사이에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여 유권자의 관심이 토론회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언론사에 의해 여과되지 않은 다수의 유권자들이 접속하여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대화나 토론을 하는 모습이 종종 관찰된다. 실시간 채팅이 갖는 현장성과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의 높은 접근성, 채팅 참여자에게 보장되는 익명성 때문에 유권자의 채팅 참여도가 높다. 토론회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시간 채팅 기록을 통해 유권자의 반응을 좀 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토론회 후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율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지율 변화가 토론회에서 보여준 후보자의 설득전략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이 결집하였거나, 토론회와 여론조사 사이에 새로 발생한 사건 등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많아 후보자가 사용한 설득전략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토론회의 전반적인 흐름 및 후보가 사용한 설득전략에 대한 기억보다 평소 특정 후보자에게 갖고 있던 이미지에 따라 평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선후보 토론회 및 실시간 채팅 기록을 분석하고자 한다. 베노이트의 기능이론을 바탕으로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주장, 공격, 방어로 대표되는 설득전략 중 어느 유형의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후보자가 사용한 설득전략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양상의 대화를 나누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제 2 장 연구의 분석틀을 위한 이론적 기초

제 1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기능이론

김관규, 박연진(2018)은 선거방송토론의 설득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베노이트의 기능이론을 활용하였다. 기능이론은 정치캠페인 메시지를 주장, 공격, 방어라는 세 가지 설득전략으로 구분한다. 기능이론은 선거방송토론 및 정치광고, 정치인 연설 등의 정치수사 분석에도 적용되었고(Benoit & Brazeal, 2002; Benoit & Currie, 2001; Benoit & Harthcock, 1999; Benoit & Wells, 1996), 후보자의 설득전략을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박연진·김관규, 2014)에도 활용되었다.

기능이론은 ① 투표는 비교하는 행동이며, ②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경쟁후보와 자신을 구분하도록 노력할 동기가 있고, ③ 정치캠페인 메시지는 후보자를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④ 후보자는 상대보다 나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장, 공격, 방어의 세 가지 설득전략을 사용하며, ⑤ 정치캠페인 수사에는 정책과 인간적 특성이라는 두 가지 논제가 포함되고, ⑥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여섯 가지 가정을 전제한다(Benoit, 2006).

선거에서 유권자는 여러 후보자 중 자신의 기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모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경쟁후보보다 공직에 더 적합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경쟁후보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정치수사를 사용하게 된다(김관규·박연진, 2018). 기능이론에 따르면 선거캠페인에서 정치수사는 필연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대한 주장과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그리고 공격에 대한 방어의 세 가지 설득전략으로 구성된다(이철한, 2013).

후보자들은 토론회 시간과, 후보자 개인의 발언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노출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 역공을 당하거나 토론회의 논제가 정책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인간적 결함에 치중한 난타전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후보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정치수사는 가급적 신중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후보자들은, 토론회가 정책 중심의 토론으로 진행되어야 전문성 및 준비성 측면에서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토론 주제와 어긋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피로도를 높일 수 있고, 상대 후보의 공격에 방어적으로 일관하면 토론회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어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후보들은 주장, 공격, 방어의 세 가지 전략 중 주장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베노이트의 기능 분석틀을 활용하여 대선 TV토론을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주장, 공격, 방어 순서로 수사 전략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김춘식·송종길·이민규·전영란, 2004; 김춘식·김관규·이영화, 2008; 박연진·김관규, 2014).

1) 주장

주장은 후보자가 자신의 긍정적인 면모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러나 주장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후보자가 경쟁후보와 동일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거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베노이트와 할스콕(Benoit & Harthcock, 1999)은 이러한 주장의 기능을 자신의 주장이 올바르고 훌륭하다는 것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칭찬, 남에게 칭찬받을 것임을 강조하는 자랑, 자신의 주장을 화제로 의견

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권유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는 경쟁후보와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장점을 위해 칭찬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주장의 유형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에 대한 주장, 주어진 대상이 얼마나 바람직한지 결정하는 가치에 대한 주장,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당위적 결론을 내리는 방침적 주장으로 나뉜다.

2) 공격

공격은 경쟁후보자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장점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공격발언을 한 후보자 자신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격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후보가 특정 행위와 관련이 있고, 책임이 있어야 하며, 특정행위는 유권자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Benoit & Wells, 1996).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하여 선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쟁후보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공격발언을 한 후보자는 유권자들로부터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격은 해당 전략을 사용한 후보자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비방이나 흑색선전으로 경쟁후보의 이미지를 낮추려고 한다면, 네거티브 공방에 지친 유권자들이 다수 이탈할 수 있으며, 근거가 없거나 허위에 근거한 비방은 유권자들이 공격전략을 사용한 후보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인간적 자질 문제가 거론된 후보가 어느 정도 해명을 한 상황에서도 비난 전략을 지속한다면, 비난 전략을 사용한 후보자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지지도가 뒤처지기 때문에, 경쟁후보자의 단점을 유권자들에게 반복해서 상기시킨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반복된 공격전략 때문에 비유력후보자라는 낙인효과가 강화되거나, 유력후보자에게 유권자가 몰리는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도중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거두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큰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밝

혔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역풍 가능성 때문에 후보자는 공격보다는 주장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선거캠페인의 메시지를 분석한 연구들은 공격을 많이 하는 후보자들이 당선이 유력하지 않은 후보들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Benoit, 2006). 유력후보를 추월할 가능성이 없을 때 공격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내연구에서도 비유력후보의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다른 후보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알리는 전략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에 비해 공격전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송종길, 2004; 박기령·김재영, 2014).

본인이 가진 장점이나 정책비전을 유권자에게 알리기보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만을 반복하는 후보자의 경우, 풍자의 좋은 소재가 되어 스스로의 정치경력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쉽다. 또한 상대 후보에게 비난 전략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후보자에게는 당 대표가 이름을 거론하며 주의를 주는 모습도 관찰된다. 만약 후보자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상대 후보를 공격할 실익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용할 정책적 승부수가 별로 없거나 지지율 역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유권자들에게는 공격에만 치중한 설득전략을 사용하는 후보자는 유력후보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공격은 토론회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중요한 전략이 되기도 한다. 때로 토론회에서 방어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후보자에게 유권자들이 할 말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만큼, 토론에서 공격 전략은 유권자를 설득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베노이트와 할스콕(Benoit & Harthcock, 1999)은 공격의 기능을 상대 후보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비평과, 상대 후보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발하는 비난으로 구분하였다.

공격의 유형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흑색선전, 주관적·감정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주관적 공격,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실적 공격으로 나뉜다.

3) 방어

방어는 상대 후보의 공격으로부터 손상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거나 이미지 손상의 원인이 되는 사안을 방어를 통해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Benoit & Wells, 1996). 그러나 방어는 잠재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보자는 설득전략 중 방어 발언을 가장 적게 사용한다. 그 이유는 상대 후보의 공격에 방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다면, 결국 유권자에게 약점을 상기시킬 수 있으며 자신이 토론을 주도해 나가기보다 상대 후보에게 끌려가는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관규·박연진, 2018).

베노이트와 할스콕(Benoit & Harthcock, 1999)은 방어의 기능을 부정, 책임회피·전가, 차별화, 전이·초월, 폐기, 인정·굴복, 최소화 등의 일곱 가지로 구분한다. 부정은 상대 후보의 공격에 대해 부정하는 것으로 '모르겠다', '아니다', '그런 적 없다'와 같은 발언이다. 책임회피는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집단·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표현이다. 차별화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행위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전이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높은 차원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표현이다. '경제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등과 같은 발언이 전이에 해당한다. 폐기는 정보의 부재나 상황에 대한 통제력 부족을 고려하는 발언이다.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사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등의 발언이다. 인정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 잘못한 행위에 대해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이다. 최소화는 잘못된 행위와 관련된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시키는 발언이다. 방어의 유형은 상대 후보의 공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내용의 주관적 방어와,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실적 방어로 나뉜다.

2. 후보자의 설득전략

선거방송토론에서 후보자의 설득전략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후보자 간의 설득전략이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거나 후보자의 위상에 따른 설득전략의 특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미국의 연구들은 후보자의 위상을 연임후보자와 도전후보자로 구분하여 설득전략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베노이트(Benoit, 2007)의 연구에 따르면, 도전후보자가 연임후보자보다 공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TV토론의 후보자 설득전략 연구도 후보자의 정치수사 특징을 고찰하거나, 후보 지지도에 따라 유력후보와 비유력후보로 구분하여 설득전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김관규·김춘식, 2008; 김관규·박연진, 2007, 2011, 2018; 박연진·김관규, 2016). 이들 연구는 대통령 연임이 불가능하고, 이전 정권과의 결별 움직임 및 대통령 임기말의 탈당 등으로 인해 집권여당과 야당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국내정치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17대, 18대, 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지지도가 높은 유력후보는 주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지지도가 낮은 후보일수록 공격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김관규·박연진, 2017). 유력후보는 차순위후보나 비유력후보보다 공격을 적게 사용하고, 방어는 다른 후보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유력후보는 실질적인 경쟁상대인 차순위후보를 대상으로 공격과 방어를 집중하였으며, 차순위후보는 지지도가 가장 높은 유력후보에게, 비유력후보는 유력후보와 차순위후보 모두에게 공격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장의 경우 모든 후보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설득전략으로 나타났다.

토론형식에 따른 후보자의 설득전략을 분석한 연구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연설형식과 상호토론형식의 토론에서는 주장, 공격, 방어 순서로 설득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질의응답형식의 자유토론에서는 공격, 방어의 설득전략 비중을 높였다(김관규·박연진, 2018). 방어는 일반적으로 후보자들이 설득전략 중 가장 적게 사용하는 전략이지만 질의응답형

식의 토론에서 유력후보는 차순위후보와 비유력후보 모두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방어적 발언을 구사하게 된다. 차순위후보는 유력후보를 대상으로 공격을 많이 사용하지만 유력후보와 비유력후보에게 공격도 받기 때문에 비유력후보보다는 방어전략을 더 많이 활용한다. 비유력후보는 유력후보와 차순위후보의 주 공격대상이 아니므로 방어보다는 공격이나 주장 발언에 집중하게 된다.

대체로 국내 선행연구는 후보자의 설득전략이 후보자의 위상이나 지지도의 차이, 토론형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연구로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설득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정치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짐작된다.

3. 정치대화

본 연구는 대선 후보자들의 설득전략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양상의 대화를 나누는지, 유튜브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실시간 채팅창 대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설계의 기본 가정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정치대화로 간주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정치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나, 정치대화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다. 정치적 행위 과정에서 시민들 간의 정치대화는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참여 민주주의의 근간과 성숙한 공론장 마련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기능한다. 시민들 사이에서 정치대화는 일상적 대화에서 정식토론까지 다양한 형태와 개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Rojas et al., 2005).

정치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미디어 이용이 정치대화에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TV나 신문 등 전통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습득이 정치대화

를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조성동·나은경, 2011; McLeod et al., 1999; Shah et al., 2005). 더불어 모바일 혹은 인터넷 기반 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습득은 정치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ampbell & Kwak, 2010; Shah et al., 2005). 이러한 정보미디어의 이용은 시민들의 정치정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논의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사안에 대한 대화에 관여하게 하며 시민 사회의 정치적 숙의를 성숙시키고 있는 것이다(장석준, 2020).

또한, 정치과정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 혹은 숙의적 정치대화가 정치참여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김은이, 2013; Delli Carpini et al., 2004). 그리고 전통적 미디어 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과정에서 정치대화는 정치참여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주환, 2001; Hardy & Scheufele, 2005). 즉, 정보미디어를 통하여 습득한 정치정보 및 지식이 많아지면 이를 통한 정치대화는 강화되고 궁극에는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정치대화를 통하여 관용적 태도가 만들어지며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게 확립되는 등, 정치대화의 다양한 영향력이 입증되고 있다(노정규·민영, 2012). 정치대화는 민주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적 요소이며 공론장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는 사회정치참여의 형태이다. 정치대화는 선거과정과 정치캠페인에서 구체적 행위이자 관심이며, 여론형성 기능을 하는 공론장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치대화는 넓은 의미의 정치참여로도 간주될 수 있다(이민웅, 2005; 황유선, 2013). 참여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시민들 간의 정치대화는 정치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시민들 사이의 정치대화 빈도가 많아지면 정치적 관심도가 증하며 이로 인하여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대화는 정치적 정체성의 관찰자인 시민을 참여자로 기능하게 한다(Bem, 1967; Mutz, 2006). 정치대화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시민성의 첫 단계가 정치적 표현과 대화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Pingree, 2007). 박정서(2012)의 연구에서는 정치 관련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과 정치 관련

이야기를 듣는 행위 등, 정치대화의 형태는 정치효능감을 높이며 공식적인 대화가 아닌 일상의 정치대화도 정치적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김은이(2013)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서의 정치대화와 정치효능감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인간 대화가 내적효능감에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대화는 정치적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미디어 이용과 정치과정의 요인 간 매개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McLeod et al., 1999; Shah et al., 2005). 이러한 정치대화의 매개적 역할과 함께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로 분류하고 있다. 정보 미디어의 이용은 대인간 정치대화를 증가시키며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대화는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Shah et al., 2005).

또한 정치대화는 정보습득이 미디어 이용과 더불어 대인간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치과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니스버트와 슈펠(Nisbert & Scheufele, 2004)은 대인간 정치대화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등의 정보미디어를 통한 정보습득에 관심을 갖게 되며, 습득한 정치정보를 타인과의 대화에서 교류하고 싶어한다고 언급한다. 습득한 정치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대인간의 대화를 통하여 이해력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대화는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정치대화에 대한 논의는 미디어 이용이나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다만 정치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정치대화의 경험 여부에 초점을 두어, 대화의 빈도, 대화의 대상, 대화의 환경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김수정, 2017; 신경아·김정은, 2018; 장석준, 2020), 본 연구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에서 중계되는 대선후보 토론회를 시청하는 유권자들의 대화 양상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설문 응답자가 정치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는지’가 아닌 ‘정치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되는 플랫폼에서

정말로 정치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4. 유튜브

본 연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텍스트 기반의 소셜미디어가 아닌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창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튜브는 텍스트 기반에 가까운 트위터나 페이스북과는 달리 동영상을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완성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다른 소셜미디어보다 매체적 소통 방식에 우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장석준, 2020). 이용자가 대화를 시작하거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해력과 작문 능력을 갖춰야 하는 텍스트 기반 소셜미디어와 달리, 영상 중심의 유튜브에서는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가 중심이 된다. 게시자와 이용자의 정보격차는 영상과 함께 삽입된 음성해설이나 자막, 혹은 함께 영상을 시청한 이용자들의 댓글과 실시간 채팅창에서의 대화를 통해 좁혀지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는 조회수나 구독자 수, 댓글 수가 많은 영상일수록 게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게시자는 되도록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게 된다.

또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팔로우(추종) 형태의 교류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의견을 공유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생각이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친구추가-수락'을 통해 형성된 관계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여 대화나 토론을 나누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소셜미디어에서는 게시자의 글에 대한 동의 여부(좋아요, 싫어요)가 강조되거나, 대화나 토론이 아닌 인용과 전달 형식에 가까운 방식으로 의견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유튜브는 관계로 엮여있지 않은 다양한 이용자들이 접속하여 의견을 표현하는 형태로 대화가 전개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는 기존 의제의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

반면, 유튜브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각기 다른 정보와 시각을 공유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Evans, 2016).

스마트기기 보급 초기에는 통신망의 데이터 전송량이나 제품 자체의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텍스트나 음성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 국내의 경우는 정치 팟캐스트가 정치평론과 오락적 요소를 혼합하여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치 팟캐스트는 방송 기획과 진행, 편집의 자유도는 높으나, 해당 프로그램과 정치적 코드가 맞는 이용자들만이 채널을 찾아와 청취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 팟캐스트는 정치 엔터테인먼트 장르로의 확장과 정파적 메시지로 시민들의 선택적 노출 현상이 밝혀졌으며 정치신념에 따라 태도의 극화 현상과 정치참여의 감소 현상도 보고되었다(민영, 2015).

반면 영상 미디어 특성을 갖는 유튜브 서비스는 정치인이 직접 제작한 정치 콘텐츠와 뉴스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치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치정보 제공과 습득 등의 정치미디어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May, 2010). 즉, 오락적 요소보다는 정보제공 위주의 특성이 강조되기도 하며, 뉴스미디어가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정치방송 프로그램의 경우는 보도나 논평 요소가 강조되기도 한다. 젠킨스(Jenkins, 2006)는 유튜브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역할로 정치정보 확산, 다른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연결성, 새로운 정보 관측 장소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미디어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대영(2018)의 연구에서 유튜브의 정치 동영상은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정치 콘텐츠의 혼합으로 시민들의 몰입을 높이며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정치 동영상 이용 동기 중 정보 추구와 네트워크 추구 동기가 정치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셜미디어 성격이 강한 유튜브에서 미디어와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이 강하고 수용자 사이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장석준, 2020).

유튜브의 경우 실시간 채팅창은 채널 진행자와 시청자 사이의 중요한

소통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때로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의 대화 양상을 주요 콘텐츠로 중계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유튜브 이용자들은 채팅창에서의 대화를 관전하고 참여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인다. 뉴스 미디어에서 같은 콘텐츠를 TV와 유튜브로 동시중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목격된다. 유튜브 이용자들이 TV를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같은 콘텐츠를 보면서 다른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남기고 있는지를 관찰하며, 때로는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튜브 이용자간 정치대화를 연구대상으로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텍스트 기반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의 정치대화는 대화 참여자가 소수이기는 하나, 필담 형식의 비교적 체계적이고 발언 순서가 있는 정제된 의견의 교환에 가까운 반면,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창 대화는 토론에 가까운 대화가 오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이용자가 정해진 발언 순서 없이 쏟아내는 정제되지 않은 대화들도 상당히 섞여 있어 내용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5. 정치참여

본 연구는 대선토론회를 유튜브에서 시청하는 유권자들이 실시간 채팅창에서 정치대화에 해당하는 형태의 대화를 나눌 것으로 가정한다. 정치대화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설명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정치참여는 정치 이슈와 선거 캠페인 등 정치과정에 주목하고 관심을 표출하는 시민들의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하고 정치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Verba & Nie, 1972). 정치참여의 개념은 다차원적이지만 투표행위, 선거유세, 토론 및 집회참석 등의 '관습적 정치참여'와 법·제도적 경로를 벗어난 정치행위와 불법시위, 점검 농성 등을 포함하는 '비관

습적 정치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Verba et al., 1995).

정치참여의 의미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헌팅턴과 넬슨(Huntington & Nelson, 1981)은 넓은 의미의 정치참여를 '시민들이 정부나 정치선거 등에서 공직자 선출이나 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민들의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점은 많은 연구에서 혼용되기도 하였지만, 정치참여는 '시민이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변인의 영향을 받으며 정부 혹은 정치체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장석준, 2020).

개인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논의되는 인지적·태도적 관점까지 포함하여 정치참여의 의미가 논의되기도 한다. 정치참여를 정치적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인지적 노력과 행동적 노력을 수반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정치참여의 개념에 정보습득이나 토론과 같은 인지적·태도적 측면도 고려한다면, 정보습득이나 토론은 정치 활동의 사전적 조건임과 동시에 정치 활동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안명규·류정호, 2007).

이런 관점에서 미디어 이용을 정치참여와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실증연구(강내원, 2004; 김진영, 2006; 이승훈·이상돈, 2009)도 있다. 시민들의 뉴스 미디어 이용은 정치참여에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기도 하나, 정치대화나 정치 효능감과 같은 변수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력을 가지며, 미디어 이용을 통해 시민은 정치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Hoffman & Thomson, 2009; Nisbert & Scheufele, 2004).

최근에는 정치참여의 공간확장이 이루어져 SNS와 유튜브에서의 소셜미디어 이용도 정치참여로 포함하여 연구되고 있다(최정화, 2012; 김은이, 2013; 오대영, 2018). 시민들의 능동적 미디어 이용은 정치참여의 인지단계에 해당됨과 동시에, 적극적 의사표현과 행위를 통한 공론장에서의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공간에서의 정치참여는 강화적 관점과 확장적 관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장석준, 2020). 강화적 관점이란 미디어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인터넷은 소수의 정치 엘리트층의 기득권 유지와 불평등의 장벽

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며, 잠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공론장으로 작동하여 정치참여의 수준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Norris, 2001). 같은 관점에서 슈펠과 니스버트(Scheufele & Nisbert, 2003)의 연구도 인터넷 이용은 정치효능감을 높이지만 정치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확장적 관점은 인터넷 이용을 통해 정치적 약자가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정치과정에서 소외된 시민들 간의 공동체 형성을 돕는 기회를 주고, 궁극적으로 정치참여에 이르게 한다는 주장이다. 앤더슨(Anderson, 2003)은 인터넷 기반 미디어가 정치참여를 증대시키며 민주주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카스텔스(Castells, 2009)는 소셜미디어가 선거 운동의 도구이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이끄는 기능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페이스북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페이스북 안에서의 정치활동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Vitak et al., 2011)도 있다.

확장적 관점에서 본다면 유튜브 역시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공론장과 정치참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들이 토론형식에 적합한 설득전략을 사용한다면, 토론을 시청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한 토론 형태의 정치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시간 채팅창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6. 유권자 평가와 반응

유권자가 선거방송토론이나 후보자의 설득전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거나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거방송토론이나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유권자의 정치성향과 관련이 높고, 후보자의 위상이나 소속 정당 등 유권자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환경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토론회 시청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의미에서 유권자들의 방송토론 평가는 방송토론 시청의 효과라고 보기 힘들다. 유권자들의 방송토론에 대한 평가는 다분히 자의적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학자들이 유권자들의 방송토론 평가를 활발하게 탐구해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이한수, 2018).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방송토론의 효용성은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와 선거정보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후보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Benoit & Hansen, 2004; Lee & Lee, 2015; 구교태·김관규·이준웅, 2007). 이들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정치 소양은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유권자는 후보의 인간적 됨됨이나, 후보가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 후보의 토론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양승찬, 2003).

선거방송토론이 후보 지지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Abramowitz, 1978; Jamieson & Birdsell, 1988; Lanoue & Schrott, 1989; Lee, 2016)도 진행된 바 있으나, 선거방송토론 시청이 유권자들의 후보 지지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amieson & Birdsell, 1988; Lee, 2016). 랭과 랭(Lang & Lang, 1984)은 선거방송토론 시청 전에 후보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유권자들 대부분이 케네디를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으며, 토론 시청 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선호를 강화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호도는 바뀔 수 있으나 후보자 선택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Yawn & Beatty, 2000).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변화는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에게만 영향력이 있음을 주장하는 선행연구도 있다. 라누와 슈로트(Lanoue & Schrott, 1989)는 1988년 미국 민주당 경선 토론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실험연구를 진행한 결과, 토론 시청집단은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변하였으며, 인지도가 낮았던 후보에 대해서 선거방송토론이 후보자의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위

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제15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노무현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한 선행연구(이강형, 2004)가 있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관련한 연구들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선거방송토론의 시청이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유권자의 선유경향을 제시한다(이강형·김춘식·양승찬·권혁남, 2004).

이와 같이 선거방송토론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권자의 인지, 태도, 행동 차원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즉, 유권자가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다양한 선거캠페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제안한 주장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후보자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 태도, 행동 차원의 효과는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응답자의 기억에 남아있는 토론회와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간접적으로 측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에서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하는 유권자들이 실시간 채팅창에서 나눌 대화에 주목하여, 유권자들이 토론회와 후보자의 설득전략에 대해 내릴 평가와 그들이 보일 반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7. 정치대화 및 토론 참여자간 대화 양상

유튜브 실시간 채팅은 감정표현과 관련된 기호 위주의 발화가 혼재된, 입력 순서 이외에는 별다른 질서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서도 대화의 흐름과 규칙이 관찰되고 토론회 전반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을 TV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

에 참여한 상태로 시청하는 이유는 네트워크를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정책, 후보자의 인격, 토론 태도, 토론회의 흐름 등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자신이 주목하는 이슈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싶다는 유인이 클 것이며, 일련의 탐색과정(일치하거나 유사한 의견을 가진 이용자 존재 여부 탐색, 유권자 성향 비중 파악, 유권자가 관심 있어 하는 이슈의 채팅 점유도 확인)후 발화를 시작할 것이다. 만약 유권자가 자신의 발언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이용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면 그들의 발화에 주목하면서 발언을 이어나갈 것이다. 실시간 채팅 초반에는 유권자가 제각기 자기 이야기를 하며 상대방을 찾다가, 코드가 맞는 이용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소모임 형태의 집단이 형성되고 집단이 군집을 이루면서 토론 주제나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머츠(Mutz, 2006)는 의견이 일치하는 대상과의 정치토론이 정치참여 및 관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정치적 태도 강화, 정치적 효능감 증가, 정치적 관심 증가를 이끌고, 정치참여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맥락에서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활발하게 의견과 감정을 나누는 흐름이 관찰될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머츠(Mutz, 2006)는 의견불일치 대상과의 정치 토론은 정치적 사안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점에 토론자를 노출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정치관심도, 정치 지식, 정치 참여도는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정치적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대상과의 토론은, 토론 참여자에게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 더 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입장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가 공존하는 상태에 있게 만들어, 자신의 견해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정치참여를 저해시킨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이질적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마주하게 된 토론 참여자는, 특정한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면 관계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이후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정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특정 입장을 가진 이용자들의 주장에 채팅을 관전하고 있던 이용자들이 동조하는 견해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세 군집이 형성되면, 다수의 견해나 입장이 채팅을 독점·과점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세 군집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가진 유권자들은 선거방송토론만 시청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예 토론 시청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다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은 잘 관찰되지 않는, 의견일치대상 사이의 대화 형태로 실시간 채팅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시간 채팅창에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과 관련한 감정적 반응이나 의사표현이 게시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면대면 대화 상황과 달리 유튜브 환경에서는 관계적 갈등의 여파나 관계 단절의 두려움을 걱정해야 할 부담이 적다. 따라서 이질적 대상과의 토론이 능동적인 정치 참여 및 정치적 관여를 촉진시키는 요인을 생성한다는 견해(McLeod et al., 1999)가 현상으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방송토론에서 후보자들이 나누는 대화와 토론처럼, 유튜브에서의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유권자들끼리 격렬한 감정반응과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정치대화에 몰입하며, 대화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방송토론 시청자들의 반응을 따로 분류한 선행연구는 드물어,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의 설득전략 분석에 사용된 베노이트의 기능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유목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반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8. 의견 분위기 파악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호감도, 정책과 공약, 선거 이슈, 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결정한다(정인태, 2014). 후보자에 대한 의견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표심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양승찬·이미나·신지희, 2018).

노엘 노이만은 의견 분위기 파악이 개인의 의견표명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Noelle-Neumann, 1977).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히지 않는 침묵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되는지에 주목하여, 여론의 분포에 대한 지각이 정치 사항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표명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한 침묵의 나선 이론에 따르면, 여론환경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의견 분위기가 자신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우세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의견이 여론에서 열세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침묵을 지킨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다룬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내재적인 욕구를 갖고 있으며(Lee et al., 2014),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고립이나 대립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회피, 타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동기와 연관되어 있다(양승찬, 1998).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뉴스미디어는 편재성, 누적성,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양한 유형의 뉴스미디어가 어느 곳에서든 존재하고, 많은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전달되는 정보는 대체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파한다. 뉴스미디어는 어떤 의견이 다수의견인지 계속해서 알려주며, 이용자들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견인지 소수의견인지 판단하게 된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여론과 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거나 여론과 가까운 의견으로 전향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침묵의 나선 이론이 가정하는 미디어, 여론지각, 의견표명 사이의 관계를 다룬 후속연구들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의견 분위기 지각과 의견표명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Glynn & McLeod, 1984; Lee et al., 2014)도 있지만, 자신의 의견이 소수의견임을 파악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Katz & Baldassare, 1992; 양승찬·서희정, 2013)도 있다.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견과 다름을 지각한 이용자들이 침묵하는 현상이 관찰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기존의 뉴스미디어와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정보 수용자로서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정보습득, 의견교환, 토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정치참여를 경험하고 있다(김동윤·김위근·조민규, 2015). 특히 유튜브 실시간 채팅처럼 익명성이 확보되고 체면이나 대인관계, 갈등의 여파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이 여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유튜브에서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하며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여론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발언, 토론 태도, 토론회의 흐름에 더 주목하면서 의견표명 정도를 조절할 것으로 짐작된다.

9. 의견지도자

소셜미디어는 기존의 뉴스미디어와 달리 다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대화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고, 이용자들은 정치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과정 전반에 참여하면서 정치지식과 정치효능감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항상 순기능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표명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무질서하고 정제되지 않은 의견과 주장이 만연하는 현상도 자주 목격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

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과 폭언, 도를 넘어선 비방이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으로 과소평가되기도 한다.

근거 없는 주장과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기 쉬운 온라인 환경은 이용자 간 불신과 냉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대안 없는 정치적 논란이나 갈등의 온상이 될 소지도 크다(김동윤, 2007).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내에서 모든 주장이나 의견이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은 어쩌면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는 그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소수의 이용자가 의견과 주장을 독점하며,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될 위험도 상존한다(김동윤·김위근·조민규, 2015). 수준 낮은 주장들이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됨으로써, 냉소와 불신, 침묵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정치토론 기피 경향이나 정치적 불신, 냉소적 분위기는 TV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 뉴스미디어보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의견지도자가 미디어와 수용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의견지도자의 정치적 발언이나 주장은 별다른 검증을 거치지 않고 확산되면서 일반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정치적 의사소통은 의견지도자와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확장시키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견지도자의 영향력이 과하게 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주를 이루는 봉건적인 모습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김동윤·김위근·조민규, 2015).

의견지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치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대중 매체로부터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Lazarsfeld, Berelson, & Gaudet, 1944)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서 나타나는데, 성별이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집단에서 각자 활발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속성을 가진다(Weimann, Tustin, van

Vuuren, & Joubert, 2007).

의견지도자의 이런 면모를 감안하면, 의견지도자의 정치적 영향력은 TV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 뉴스미디어보다는 이용자간 소통이 중심이 되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인플루언서로 불리기도 하는 온라인 의견지도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얻은 정보를 자신의 생각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보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견지도자는 일반 이용자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깊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최윤정, 2009).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위계질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영향력이 강한 이용자들이 커뮤니티의 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Ahuja & Carley, 1999).

또한 온라인 의견지도자는 문해력과 문장력, 논변 품질 등 의사소통 능력이 일반 이용자들에 비해 뛰어나며 메시지를 해석·분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우수하다(김경모·송현진, 2011; 이준웅·김은미·김현석, 2007). 온라인 의견지도자들은 높은 정치적 지식과 관여를 보이는데, 이들의 주장이나 의견은 일반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견표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인지구조적 복잡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찬성과 동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동윤·김위근·조민규, 2015; 김현석·이준웅, 2007).

의견지도자의 특징을 고려해 본다면, 선거방송토론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일수록 유권자에게 위계가 높은 의견지도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는 다른 유권자보다는 후보자의 위계가 더 높게 인식될 것이다. 토론회를 시청하는 유권자들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들보다는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의 의견에 관심을 보일 것이며,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보다는 후보자의 발언에 더 주목하면서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10. 숙의와 참여의 공존을 위한 후보자의 역할

유튜브에서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하며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후보자, 미디어 환경, 여론 분위기, 사회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의견표명 정도를 조절할 것이다.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후보자가 유권자의 의견표명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황중계는 요약보도나 비평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시청하는 유권자는 미디어에 의해 여과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된다. 토론 사회자는 진행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선거방송토론 시청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고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은 유권자의 몫으로 남는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자질을 경쟁후보자와 비교하면서 검증할 기회를 갖는다. 정치지식이나 효능감이 높지 않은 유권자라 하더라도, 후보자의 표정, 토론 태도, 어조 등 다양한 시청각 정보를 활용하여 어떤 후보가 토론을 더 능숙하게 주도하는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시간 채팅을 점유하고 있는 다수의 의견이 유권자의 판단에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이들은 후보자보다 의견지도자로서의 위계가 낮다. 유권자에게 후보자는 위계가 높은 의견지도자이지만, 유권자는 후보자로부터 특정 의견을 갖도록 무언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후보자보다 의견지도자로서의 위계가 낮고, 지인이나 친구·가족 등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며, 후보자보다 정치적 식견이나 의사소통능력이 탁월하거나 최소한 후보자와 비슷한 수준을 가진 것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불특정 다수의 주장에 유권자가 부담을 느껴야 할 이유는 없다. 유권자는 토론회를 시청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후보자의 주장과 비교할 기회를 갖고, 이를 다시 여론에 견주어 봄으로써 의견의 위계를 정립할 수 있다. 설령 유권자가 다양한 미디어에서 접한 여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도, 후보자의 생각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부분이 확인되면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거나 후보자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후보자는 유권자의 인지·태도·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시청하며,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자의 발언에 적극 호응하면서도 경쟁후보자의 발언도 함께 경청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유권자의 주장도 용인하기 위해 노력하려면, 후보자부터 책임감을 갖고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성숙한 토론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하는 유권자들은 의견지도자인 후보자에게 강하게 동조하며 후보자의 주장, 토론 태도, 언행을 재생산하는 형태로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맥클럭(McClurg, 2006)은 1996년 미국 대선 당시 중서부에서 이뤄진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 응답자가 대화 상대자의 정치적 식견을 높게 평가할수록 의견불일치로 인한 양가적 태도가 감소하고 투표 참여는 증가했음을 발견했다. 연구결과를 선거방송토론에 대입해 본다면, 토론회를 시청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식견을 높이 평가할수록 정치적 이견에 대한 양가적 태도가 감소하고 토론회를 비롯한 정치대화 및 정치활동 참여가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용 등의 시민성을 키우고, 민주주의의 이상인 '식견을 갖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Almond & Verba, 1963; Delli Carpini et al., 2004; Mendelberg, 2002; Mutz, 2002)'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의견지도자로서 후보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제 3 장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제 1 절 연구문제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자칫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 전략은 자제하고, 주장 전략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되도록 많은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후보자의 발언시간이 제한된다. 후보자가 공격 전략을 사용할 경우, 한정된 발언시간을 상대 후보의 역공을 방어하기 위해 할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토론의 흐름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감정 싸움으로 전개될 경우,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후보들은 주장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며, 공격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상대 후보의 자질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상대 후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비평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공격에 방어할 때는 공격을 무력화시키거나 화제를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정이나 차별화, 폐기 전략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방어전략 중 인정은 자칫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책임회피, 전이, 최소화 전략은 상대 후보의 추가공격으로 이어지거나 토론회를 시청하는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어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1> 대선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설득전략은 무엇인가?

> <연구가설 1-1> 후보자들은 토론에서 주장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이다.
> <연구가설 1-2> 후보자들은 공격전략 중 비평을 비난보다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연구가설 1-3> 후보자들은 방어전략 중 부정, 차별화, 폐기 전략을 인정, 회피·전가, 전이, 최소화 전략보다 많이 사용할 것이다.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주장 전략과 비평 전략을 주로 사용할 때, 토론의 질이 확보되고, 유권자들의 토론회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유권자들이 대화나 토론 형태로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관찰될 것으로 짐작된다. 후보자가 사용하는 토론전략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은, 실시간 채팅에서 토론자의 발언에 대해 유권자들이 관련 대화를 얼마나 자주, 오래 나누는지 채팅시간 비중이나 해당 발언 관련 의견 수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의 주장, 공격, 방어 발언에 따라 유권자들이 실시간 채팅창에서 각 유형과 관련된 발언을 얼마나 많이 생성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설득전략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및 대화의 질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후보자들이 주장 전략과 비평 전략 중심으로 토론에 참여한다면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실시간 채팅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일방적 지지나 비난이 아니라 주장과 비평 전략 중심의 2차, 3차 토론이 관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후보자가 비방이나 흑색선전으로 경쟁후보의 이미지를 격하시키려고 할 경우, 이를 접한 유권자는 오히려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후보자는 공격보다는 주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김관규·박연진, 2018). 토론회가 정책 주장과 사실적 공격, 사실적 방어 중심의 토론이 아닌, 후보자 자질에 대한 비난이나 언쟁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유튜브에서 유권자들의 부정적 감정은 토론회 시청자 수 감소 또는 '싫어요' 숫자의 증가 현상으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채팅창의 대화를 주로 살펴봄으로써 유권자들의 반응을 관찰하고자 한다. 토론회 운영방식이나 후보자의 토론 태도를 질타하는 경우,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유권자끼리 편을 나누어 서로 비난하는 경우를 부정적 반응으로 분류하여 코딩하고자 한다.

후보자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적절한 방어를 하고 그 발언이 유권자를 납득시킨다면 긍정적인 면모를 제고할 수 있다(김관규·박연진, 2018). 방어전략 중에서 유권자들은 부정, 차별화, 폐기 전략을 인정, 책임회피, 전이, 최소화 전략보다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분석유목에 따라 후보자의 전략을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후보자의 유형별 발언에 유권자들은 어떤 내용의 후속 발언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만약 후보자의 방어 발언이 적절하였다면, 유권자들은 응원이나 격려, 또는 후보의 발언에 대한 보충 및 보완 발언을 실시간 채팅창에 기록할 것이다. 만약 후보자의 방어 발언이 부적절하다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후보자가 제시한 방어적 근거에 재반박을 하거나,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채팅창에 의견을 남길 것으로 짐작된다.

<연구문제 2> 대선토론에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설득전략에 대해 유권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연구가설 2-1>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전략 중 주장 전략에 가장 관심을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2>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주장, 방어보다 공격에 부정적 반응을 더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2-3>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방어전략 중 인정, 전이, 회피·전가, 최소화보다 부정, 폐기. 차별화에 긍정적 반응을 더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2-4> 후보자의 토론이 주장 및 비평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실시간 채팅에서도 유권자 사이에서 토론이 관찰될 것이다.

<연구문제 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정당의 후보자가 사용하는 설득전략과 유권자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

제 2 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튜브에서 중계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의 후보자 발언과 실시간 채팅에서의 유권자 대화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토론회는 주관 방송사의 TV채널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중계되었으며, 국민의힘 토론회는 주관 방송사의 TV채널과 유튜브 채널, 그리고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동시 중계되었다.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9회(더불어민주당 13회, 국민의힘 6회)의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해당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은 본경선, 국민의힘은 예비경선(1·2차)을 진행하였다. 이번 경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행사가 취소되고, 각 정당의 공식행사나 후보의 개인 일정이 상당 부분 축소된 상황이어서, 유권자의 이목이 더욱 토론회에 집중되었다. 양 정당의 토론회 일정이 겹치는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이 기간은 추석 연휴와 양 당의 정쟁 이슈(고발사주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가 맞물렸던 시기이며, 각 정당의 토론회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토론회(더불어민주당 9차, 국민의힘 3차)가 열린 기간이기도 하다.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선거방송토론은 대부분 실시간 채팅 기능도 함께 지원하였다. 다만 종합편성채널(TV조선, 채널A, MBN)이 중계한 회차의 토론회에서는 실시간 채팅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사 및 지역 방송사, 국민의힘 <오른소리> 채널의 토론회 중계는 모두 실시간 채팅을 지원하였고, 대부분 실시간 채팅 다시보기 기능도 제공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사용할 토론회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토론회의 중계 특징과 맥락을 파악하고자 경선 기간에 열린 선거방송토론의 주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더불어민주당 선거방송토론 주요정보<2021.09.26.~10.6. 조사>

정당	회차	토론일시	주관 방송사	실시간 채팅	조회수	토론회 관련 주요 이슈 및 사건
더불어민주당	1차	7월 28일(수) 오후 3시 30분	MBN 연합뉴스TV	×	12만	•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후보자 첫 토론 • 네거티브 과열 방지를 위한 원팀 협약식(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2차	8월 4일(수) 오후 5시	YTN	○	26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경선 일정 연기(8월 7일→9월 4일) • 정치개혁 주제 토론,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더불어민주당	3차	8월 11일(수) 저녁 7시	KBS	○	21만	• 통일·외교정책 주제 토론,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정책' 관련 공방 • 이재명-추미애 vs 이낙연·정세균·박용진
더불어민주당	4차	8월 17일(화) 오후 5시	채널A	×	19만	• 부동산 정책 주제 토론,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 이재명 후보 '기본주택 정책',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황교익 경기도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보은인사 관련 공방 • 이재명 vs 이낙연·정세균·추미애·박용진·김두관
더불어민주당	5차	8월 27일(금) 오후 5시 30분	대전·충청 방송 6사 (대전MBC)	○	15만	• 충청권 발전 공약,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 김두관·정세균 후보, 자가격리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토론
더불어민주당	6차	9월 1일(수) 오후 5시	오마이뉴스	○	7만	• 후보자간 첫 1:1 방식 토론 • 정세균 후보, 자가격리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토론 • 대전·충남 경선(9월 4일)
더불어민주당	7차	9월 7일(화) 오후 5시 30분	대구·경북 방송 3사 (KBS·MBC ·TBC)	○	14만	• 대구·경북권 발전 공약,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 이낙연 후보, 네거티브 공세 거두고 정책 중심 경선 선언(9월 7일) • 이낙연 후보 국회의원직 사퇴(9월 8일)
더불어민주당	8차	9월 14일(화) 밤 10시 30분	MBC	○	19만	• 대구·경북 경선(9월 11일) • 강원 경선 및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9월 12일) • 누적 득표율 이재명 51.41%, 이낙연 31.08%, 추미애 11.35% • 정세균 후보 사퇴(9월 13일) • 1:1 방식 • 청년실업,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더불어민주당	9차	9월 19일(일) 오후 3시	MBC	○	45만	• 정세균 후보 누적 득표 무효처리 결정(9월 15일) • 이재명 후보 누적 득표율 53.71%, 결선투표 없이 대선후보 가능성 상승 • 추석 연휴 기간 • 더불어민주당 최대 선거인단(20만) 호남지역경선 • 호남권 발전 공약,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 이재명 후보,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 게이트' 발언(9월 18일) • 이재명-추미애 vs 이낙연-박용진 구도
더불어민주당	10차	9월 24일(금) 오후 5시 30분	부산·울산· 경남 방송 8사	○	29만	• 부산·울산·경남권 발전 공약, 자유주제 토론 •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후보 vs 이낙연 후보 공방 •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신복지' 공약 비판 • 이재명-추미애 vs 이낙연-박용진 구도 • 김두관 후보 사퇴 및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11차	9월 28일(화) 저녁 8시 30분	SBS	○	28만	• 광주·전남 경선(9월 25일)-이낙연 후보 1위 • 전북(9월 26일) 경선-이재명 후보 1위 • 외교·안보·통일,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후보 vs 이낙연 후보 공방 • 이재명-추미애 vs 이낙연-박용진 구도 • 이재명 후보 여론조사 및 지지율 우위 유지
더불어민주당	12차	9월 30일(목) 오후 5시	TV조선	×	15만	• 주말 3연전 및 결선투표 여부 앞두고 이재명·이낙연 후보 대결구도 심화 • 제주 경선(10월 1일) • 부산·울산·경남 경선(10월 2일) • 인천 경선(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13차	10월 5일(화) 오후 5시	OBS	○	12만	• 2차 선거인단 투표결과 발표(10월 3일)-이재명 후보 누적득표율 54.9% 이낙연 후보 34.3%, 누적 득표수 차이 20만 4469표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10월 3일) •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마지막 토론회 • 10월 8일 예정 지상파 3사 주관 토론회 취소 • 경기 경선(10월 9일) • 서울 경선(10월 10일) • 3차 선거인단 투표결과 발표(10월 10일)-이재명 후보 누적득표율 50.29% 이낙연 후보 39.14%, 누적 득표수 차이 15만 9513표

<표 2> 국민의힘 선거방송토론 주요정보<2021.09.26.~10.6. 조사>

정당	회차	토론일시	주관 방송사	실시간 채팅	조회수	토론회 관련 주요 이슈 및 사건
국민의힘	1차	9월 16일(목) 오후 4시 50분	오른소리	○	41만	•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자 첫 토론 • 윤석열 후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9월 8일) • 고발사주 의혹 관련 제보자 조성은 기자회견(9월 11일) • 1차 예비경선 컷오프(9월 15일) • 후보자 자질 검증 중심 • 윤석열 vs 홍준표-유승민, 윤석열 vs 하태경, 홍준표 vs 하태경 • 홍준표 후보,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 발언(9월 16일) • '조국수홍' 패러디 등장(9월 16일) • 홍준표 후보, 토론회 후 페이스북에 조국 수사 관련 발언 해명(9월 16일)
			TV조선	×	78만	
국민의힘	2차	9월 23일(목) 오후 5시	오른소리	○	29만	• 경제 분야 토론,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 윤석열·홍준표 후보 대상 검증과 공방 중심 • 윤석열 후보, '군 제대 주택청약 가산점', '소상공인 회생' 공약 유사 논란 • 홍준표 vs 하태경: 조국 수호 발언 관련 언쟁 • 홍준표 후보, 2차 토론에서는 방어적 태도였다는 평가. 3차 토론에서는 '홍준표다움'을 보여주겠다고 다짐(9월 23일)
			MBC	○	22만	
			SBS	○	10만	
			KBS	○	2만	
국민의힘	3차	9월 26일(일) 밤 9시	오른소리	○	39만	•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수령 논란, 국민의힘 탈당 • 외교·안보, 부동산 정책 토론,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집중 • 곽상도 의원 징계 수위 • 박근혜 정부 평가 • 윤석열 vs 홍준표, 홍준표 vs 유승민, 윤석열 vs 유승민 • 윤석열 후보 자질 논란: 홍준표 후보의 작전계획5015 질문 및 하태경 후보의 재건축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 부정확한 답변 제시
			채널A	×	81만	

국민의힘	4차	9월 28일(화) 밤 11시 30분	오른소리	○	22만	• 장제원 의원, 아들 무면허운전 및 경찰관 폭행 관련,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사퇴(9월 28일) • 곽상도 의원, 의원직 사퇴 불가 입장 표명(9월 28일)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제명 추진 의사 표명(9월 28일)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곽상도 의원 제명 지지 의사 표명(9월 29일) • 국민의힘, 화천대유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연루 의혹 재점화(9월 29일) • 외교·안보·통일 정책 토론,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 윤석열 vs 홍준표, 윤석열 vs 유승민
			MBC	○	51만	
국민의힘	5차	10월 1일(금) 오후 5시 15분	오른소리	○	44만	• 고발사주 의혹 사건 대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9월 30일) • 경제정책 토론,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 윤석열-홍준표 후보간 설전(10월 1일) • 윤석열 후보, 손바닥 '王'자 논란 • 곽상도 의원 제명에 대한 후보간 입장 차이 • 곽상도, 의원직 사퇴(10월 2일)
			MBN	×	53만	
국민의힘	6차	10월 5일(화) 밤 10시 50분	오른소리	○	47만	•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위장당원 가입 증가 발언(10월 4일) • 사전녹화 토론 • 안상수 후보, 토론회 중 과격한 발언과 퍼포먼스 논란 • 윤석열 후보 대상 손바닥 '王'자 논란, 위장당원 가입 관련 집중 공세 • 윤석열 vs 홍준표·유승민·하태경 구도 • 고발사주 의혹 관련, 정점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10월 6일) • 2차 예비경선 컷오프,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 본경선 진출(10월 8일) • 황교안 후보, 부정 경선 의혹 제기(10월 8일)
			KBS	○	32만	

*오른소리: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1. 더불어민주당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7월 예비경선을 거쳐 6인의 본경선 후보를 확정하고, 8월 한 달간 5차례의 선거방송토론을 진행한 후, 9월부터 지역순회경선과 선거방송토론을 함께 진행하였다. 당초 8월 7일 대전·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경선 일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특별방역기간 지정에 따라 9월 4일로 순연되었다. 8월에 진행된 5차례의 선거방송토론의 경우, 9월에 진행된 토론보다는 조회수가 대체로 낮게 나타난다. 지역순회경선과 슈퍼위크 등 경선 주요일정 이전에 진행된 토론이라는 점, 후보가 아직 압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 야당인 국민의힘 경선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는 점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인단 모집과 투표를 각각 3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모집을 1·2·3차로 나눠서 진행하고(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 자동합산), 각 선거인단이 투표할 기간도 1·2·3차로 분리하였다.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총 세 번의 슈퍼위크를 설계한 것으로, 각 슈퍼위크 마지막 날(9월 12일, 10월 3일, 10월 10일)에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것도 경선흥행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유력후보자는 대세론을 굳히고, 경쟁후보자는 역전의 기회를 준비하며 경선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판세를 보고 결집하도록 유도하는 컨벤션 효과를 끌어내고자 의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의 표를 모두 1표로 계산한다. 모두 11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과 3차례의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후보가 결정된다. 지역순회경선은 각 지역별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자동응답서비스(ARS)·현장투표 합산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규모는 1차(7월 5일~7월 11일 모집) 64만 1992명, 2차(7월 16일~8월 3일 모집) 49만 6339명, 3차(9월 1일~9월 14일 모집) 30만 5779명으로, 대의원·권리당원·재외국민 선거인단을 합산한 총선거인단 수는 216만 9511명(19대 대선: 214만 4840명)으

로 발표되었다.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의 규모가 대의원·권리당원의 2배에 이르는 만큼, 각 후보별 캠프에서도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지역순회경선과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된 9월부터 후보자들은 개인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였으며, 정세균 후보의 사퇴 후 득표 처리 방식을 두고 선거캠프간 이견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9월 18일~9월 22일)과 맞물려 여야간 정쟁 이슈가 발생하면서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 집중되었다.

9차 토론회부터 13차 토론회까지 대세론을 굳히려는 이재명 후보와 결선투표의 기회를 잡고자 하는 이낙연 후보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기간에 토론회의 주된 흐름이 대장동 의혹 검증에 집중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추미애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박용진 후보와 연대하며 토론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10월 10일 본경선 최종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전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순회경선과 1·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표를 차지하며 최종 50.29%(71만 9905표)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에 집중된 후반부 경선 마지막에 열린 3차 선거인단 투표(10월 6일~10일)에서는 그간의 경선 득표율 중 가장 낮은 28.3%(이낙연 후보 62.37%)의 득표율을 얻어, 향후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고 유권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낙연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경선 중도 사퇴 후보자들의 득표 처리 방식에 대해 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으나, 송영길 대표와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는 등 한동안 당내 진통을 겪었다.

이후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고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10월 18일, 20일 국정감사에 참석하였다. 이후 24일에는 이낙연 후보와 회동하며 경선 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일정을 가졌다.

2. 국민의힘 경선

국민의힘은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비경선 후보 등록기간을 갖고,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1차 예비경선을 진행하였다. 1차 예비경선에서 후보들은 별도의 선거방송토론 없이 정책발표회(9월 7일)와 국민면접(9월 9일~10일)에 참여하였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경선 방식에 대한 후보자 견해가 달라 성사되지 못하였다. 정책발표회와 국민면접 이후 당원 여론조사 20%, 국민 여론조사 80%(각 2,000명씩 표본집단 선정)를 합산한 결과 8명의 후보가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하였다.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2차 예비경선 기간인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6차례의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2차 컷오프에서 당원 투표 30%, 국민 여론조사 70%를 합산하여 추려진 4명의 후보가 본경선에 참여하였다. 본경선 후보자들은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회의 지방순회 토론회와 3회의 일대일 토론으로 구성된 총 10회의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여 최종후보가 결정되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방식을 살펴보면 당원 여론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홍준표 후보의 복당(6월 24일)과, 최재형 후보(7월 15일), 윤석열 후보의 입당(7월 30일)이 경선이 가까워진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정당이며, 각 정당 출신 후보와 소속 없이 범야권으로 분류되었던 후보들이 국민의힘 경선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경선 방식과 관련하여 후보들 사이에서 역선택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최재형 후보는 경선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여 경쟁력이 없는 후보에게 표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여론조사에 정권교체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홍준표·유승민·하태경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국민들의 여론도

수렴하는 것이 옳다며 역선택 방지 도입에 반대하였다.

이후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에게 국민의힘 지지 여부나 정권교체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대신 본경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묻는 질문을 여론조사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1차 예비경선의 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100%에서 80%로 조정하고, 당원 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국민의힘 경선은 더불어민주당 경선보다 한 달 보름 가량 늦게 시작되었지만, 선거방송토론 조회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9월에 접어들어 여야 선거방송토론 일정이 맞물리기 시작하였고, 후보자 관련 이슈들이 보도되면서 유권자들이 선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결과로 해석된다. 윤석열 후보 관련 '고발사주 의혹(9월 8일)', 1차 토론에서의 홍준표 후보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 발언(9월 16일), 3차 토론 이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자질 논란(9월 26일), 화천대유 사건 관련 여야간 공방전(9월 17일~10월 5일) 등 경선 관련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조명되면서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 집중되었다.

10월 8일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었다. 본경선 후보는 당원 투표 30%, 국민 여론조사 70%(3,000명 표본집단 선정)를 반영하여 선출하였으며 여론조사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었다. 컷오프 결과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하였다. 이후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종합순위 및 득표율 차이 정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후보는 득표율이 조작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11월 5일 국민의힘 본경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의힘 당원투표율은 63.89%(전체 56만 9059명 중 36만 3569명 투표)로 집계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총 34만 7963표(득표율 47.85%, 당원 21만34표, 여론조사 환산 13만 7979표)를 얻어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홍준표 후보는 총 30만 1786표(득표율 41.5%, 당원 12만 6519표, 여론조사 환산 17만 5267표)를 얻었다.

3. 선거방송토론회 중계 특징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방송토론 주관 방송사를 살펴보면 MBC가 2회로 가장 많고, KBS, SBS,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 YTN, 오마이뉴스, 대전·충청 방송 6사, 대구·경북 방송 3사, 부산·울산·경남 방송 8사, OBS가 각 1회씩 주관하였다. 토론회는 모두 각 방송사의 TV 채널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중계되었으나, MBN·연합뉴스TV(1차), 채널A(4차), TV조선(10차)의 경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채팅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다.

실시간 채팅을 지원하지 않은 토론회와 실시간 채팅을 지원한 토론회 사이에 조회수의 차이가 발견되는지 살펴보았다. 실시간 채팅이 가능했던 토론회의 각 조회수는 6차 토론회를 제외하고 실시간 채팅을 지원하지 않았던 1차, 4차, 12차 토론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6차 토론회를 주관한 오마이뉴스의 경우, 인터넷신문사로서 별도의 TV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추석연휴기간 및 국민의힘 선거방송토론 일정과 맞물려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8차 토론회부터 12차 토론회를 살펴보면, 실시간 채팅이 가능했던 8차 토론회부터 11차 토론회의 각 조회수가 실시간 채팅을 지원하지 않은 12차 토론회의 조회수보다 높게 나타난다. 11차 토론회는 중계 당시에는 실시간 채팅을 지원하였으나, 실시간 채팅 다시보기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다. 13차 토론회는 실시간 채팅을 지원하였으나 12차 토론회보다 조회수가 낮게 나타난다. 9차 토론회부터 대장동 이슈 관련 후보자간 공방이 지속된 관계로 유권자들이 토론회 시청에 피로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또한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이후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진출이 유력해진 상황이기도 했다. 그리고 OBS가 경기·인천지역 방송국이며 토론회 중계 시간이 유권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은 오후 5시였던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0차를 제외한 지역 방송국 주관 토론회(5차, 7차, 13차)는 모두 비슷한 조회수를 보인다. 해당 회차의 토론회는 모두 오후 5

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진행되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야 언론의 후속 보도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알게 된 유권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경기 지역 순회경선(10월 9일~10일)을 앞두고 14차 토론회가 지상파 3사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특정 방송사가 국민의힘과 토론회 중계 횟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여 취소되었다. 실시간 채팅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선거방송토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더불어민주당 선거방송토론 중계 특징

실시간 채팅	회차	일시	방송사	조회수
×	1차	7.28.	MBN 연합뉴스TV	12만
×	4차	8.17.	채널A	19만
×	12차	9.30.	TV조선	15만

실시간 채팅	회차	일시	방송사	조회수
○	2차	8.4.	YTN	26만
○	3차	8.11.	KBS	21만
○	5차	8.27.	대전·충청 방송 6사	15만
○	6차	9.1.	오마이 뉴스	7만
○	7차	9.7.	대구·경북 방송 3사	14만
○	8차	9.14.	MBC	19만
○	9차	9.19.	MBC	45만
○	10차	9.24.	부산 울산·경남 방송 8사	29만
○	11차	9.28.	SBS	28만
○	13차	10.5.	OBS	12만

국민의힘의 선거방송토론 주관 방송사를 살펴보면, KBS와 MBC가 2회, SBS, TV조선, 채널A, MBN이 각 1회씩 중계하였다. 국민의힘 선거방송토론 중계의 특징은 정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토론회는 모두 주관 방송사의 TV 채널과 유튜브 채널 및 오른소리를 통해 동시 중계되었으나, TV조선(1차), 채널A(3차), MBN(5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토론중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채팅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다. 지상파 3사(2차), MBC(4차)에서는 실시간 채팅 기능이 지원되었다.

실시간 채팅을 지원하지 않은 유튜브 채널과 실시간 채팅을 지원한 유튜브 채널 사이에 조회수의 차이가 발견되는지 살펴보았다. 1·3·5차 토론회에서는 실시간 채팅을 지원한 오른소리보다 실시간 채팅을 지원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의 유튜브 조회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2차 토론회의 경우 지상파 3사와 오른소리 모두 실시간 채팅 기능을 지원하였는데, 오른소리 채널의 중계방송 조회수(29만)가 가장 높고, MBC(22만), SBS(10만), KBS(2만) 순서로 차이를 보였다. 유튜브를 통해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하는 유권자들은 정치성향이 비슷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시청 당시 실시간 시청자 수가 가장 많은 채널을 선택하여 시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실시간 채팅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국민의힘 선거방송토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국민의힘 선거방송토론 중계 특징

실시간 채팅	회차	일시	방송사	조회수
×	1차	9.16.	TV조선	78만
×	3차	9.26.	채널A	81만
×	5차	10.1.	MBN	53만

실시간 채팅	회차	일시	방송사	조회수
○	1차	9.16.	오른소리	41만
○	2차	9.23.	오른소리	29만
			MBC	22만
			SBS	10만
			KBS	2만
○	3차	9.26.	오른소리	39만
○	4차	9.28.	오른소리	22만
			MBC	51만
○	5차	10.1.	오른소리	44만
○	6차	10.5.	KBS	32만
			오른소리	47만

국민의힘 선거방송토론의 경우, 실시간 채팅을 지원하지 않았던 종합편성채널 유튜브 조회수가 실시간 채팅을 지원한 오른소리 채널 조회수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방송토론과 상반된 결과이다. 유튜브에서 '국민의힘 대선토론'을 검색하면 방송사 채널이 오른소리 채널보다 상위에 표시된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른소리 채널을 잘 몰랐거나 처음 접한 유권자들이 좀 더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송사 채널을 찾아 토론을 시청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발사주 의혹이나 화천대유 사건 등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유권자들도 주목하고 있는 쟁점이 토론회에서 다뤄졌다는 점도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분석대상 토론회

본 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9차 토론회와 국민의힘 3차 토론회를 분석대상 토론회로 삼고자 한다. 해당 토론회는 9월 중순 이후 양 당의 토론회 일정이 겹치고, 유력후보자 및 경선 관련 이슈가 토론회 전후로 집중적으로 논의되던 기간에 진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9차 토론회(9월 19일)는 추석 연휴 기간에 진행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전체 토론회 중 조회수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보다는 정책에 집중하며 경선에 임하겠다고 선언(9월 7일)한 이후에 열린 토론회인 점, 1차 선거인단 투표결과 발표(9월 12일) 이후이며, 경선 초반 당내 지지도 3위였던 정세균 후보의 사퇴(9월 13일) 이후에 열린 토론회였다는 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인 광주·전남·전북 경선(9월 25일~26일)을 앞둔 시점에 열린 토론회라는 점을 분석대상 선정에 감안하였다.

김두관 후보의 사퇴 및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9월 26일) 이후이며, 주요 경선일정을 앞두고 결선투표 시행에 사활을 건 이낙연 후보와 대세론을 굳히고 본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이재명 후보 사이에 격론이 이어지던 시기에 열렸던 11차 토론회(SBS, 9월 28일)와 12차 토론회(TV조선, 9월 30일)는 해당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채팅 다시보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시간 채팅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5> 분석대상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회차	9차
일시	9.19.
형식	정책발언 다자간 주도권
주요 쟁점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후보자 자질검증
조회수	45만

국민의힘	
회차	3차
일시	9.26.
형식	다자간 주도권
주요 쟁점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후보자 자질검증 적통성 논쟁
조회수	81만(39만)*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중계 조회수

국민의힘 토론회는 유력후보인 윤석열·홍준표 후보를 유승민·하태경 후보가 검증하는 양상을 띠며 전개되었다. 유력후보를 차순위후보가 견제하며 공격한다는 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토론 양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가 모두 오랜 기간 당원이었던 인물로 경선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당내 지지율 선두권인 윤석열 후보와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후보가 최근에 입당하였고, 두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인 만큼 경쟁후보자들 사이에서 정체성 시비가 자주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하태경 후보는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다른 정치노선을 걸었던 바 있어, 보수진영의 적통성이나 박근혜 정부 평가 관련하여 격론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3차 토론회의 경우 국민의힘 토론회 중 조회수가 가장 높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이슈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게로 초점이 모아지면서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특히 3차 토론회는 야당에서 그동안 여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흔들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던 이슈가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기로의 시점에 열렸던 토론회였다.

3차 토론회는 홍준표 후보의 토론전략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토론회이기도 하다. 1차 토론회에서 조국 수사 관련 발언으로 설화에 시달렸던

홍준표 후보는 2차 토론회에서는 공격이나 소신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3차 토론회에서 다시 '홍준표다움'을 보여주겠다고 공언(9월 23일)한 바 있는데, 홍준표 후보의 공언이 실제로 토론 태도나 토론 전략사용 변화로 확인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3차 토론회는 윤석열 후보가 작전계획 5015나 재개발 정책 질문에 정확하지 못한 답변을 하여 자질 논란이 불거졌던 토론회이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 3 절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1. 연구방법

1) 내용분석 절차

본 연구는 중계 방송사 및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선거방송토론과 유권자의 실시간 채팅을 분석하였다. 먼저 후보자가 발언한 문장을 분석단위로 삼았다. 이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설득전략을 주장, 공격, 방어로 분류하였다. 개별 분석단위 문장 속에 공격이나 방어대상이 둘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하였다. 발언에 따라 여러 문장이 하나의 유형에 해당되기도 하였다. 분석대상으로 분류된 후보자 발언 문장 수는 더불어민주당 599건, 국민의힘 579건, 총 1178건 이었다.

공격대상은 발언한 후보자의 비평·비난 대상이 되는 다른 후보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후보자를 거명하며 공격을 하거나 후보자의 경력, 주변 인물, 소속 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해당 후보자가 공격의 대상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 하나의 분석단위 안에 여러 후보를 동시에 공격하는 발언을 한 경우, 각 후보자에게 공격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한 후보에게 복수의 분석단위에서 공격 발언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공격으로 분류하였다.

방어대상은 상대 후보자의 공격 발언에 대해 후보자가 방어 발언을 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질문 혹은 누구의 비난이라고 공격 발언을 한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후보자의 경력, 주변 인물, 소속 기관에 대한 상대 후보자의 공격에 방어 발언을 한 경우를 말한다. 방어대상의 분류에서도 동일 분석단위에 여러 후보에 대한 방어 발언이 있을 경우와 한 명의 후보에 대해 다수의 분석단위에서 방어를 사용했을 경우 별도의 방어 횟수로 분류하였다.

유권자 반응은 채팅창에 기록된 문장을 분석단위로 삼았다. 단어나 짧은 문장이 대부분인 채팅 메시지의 특성상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어서, 문장에 포함된 유권자 반응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였다. 설득전략과 마찬가지로 개별 분석단위 문장 속에 공격이나 방어대상이 2개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아이디가 동일하더라도 토론회 전반에 걸쳐 다른 내용의 문장을 게시한 경우는 별도로 분류하였다. 아이디가 동일한 유권자가 동일한 내용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첫 문장 이외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같은 아이디의 유권자가 내용상 하나에 해당하는 문장을 분절하여 게시한 경우는 하나의 반응으로 간주하여 코딩하였다.

유권자들은 토론회 시작 전 대기시간이나, 사회자가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의 규칙을 설명하는 시간에도 실시간 채팅창에 의견을 게시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후보가 토론회 시작 후 발언을 한 번도 시작하지 않은 시간에 게시된 유권자의 의견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유권자들은 다른 후보가 발언하는 중에도 자신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였는데, 이 경우 해당 후보의 직전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분석대상으로 분류된 유권자 반응 문장 수는 더불어민주당 4896건, 국민의힘 7307건, 총 12203건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 2명을 코더로 선정하여 연구자와 코더가 후보자 발언과 실시간 채팅창에서의 유권자 대화를 무작위로 10% 추출한 후, 정해진 코딩 절차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더들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코딩을 진행하고 홀스티 공식을 사용하여 코더간 신뢰도[1]를 측정하였다. 후보자 설득전략의 경우 91.3%, 유권자 반응의 경우 86.7%의 일치를 보였다. 코더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토의를 거친 뒤 합의하여 재분류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관찰빈도와 기대빈도 사이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스퀘어(χ^2) 검정[2]을 실시하였다.

2) 분석유목

본 연구에서는 2022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양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후보자 간 토론과 유권자들의 실시간 채팅 기록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후보자들의 설득전략을 주장, 공격, 방어로 분류하고, 전략에 따른 유권자들의 반응을 유형화하여 설득전략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토론회 중 후보자들이 주장, 비평 전략을 주로 사용한 시간에, 실시간 채팅에서도 유권자 간 토론 흐름이 관찰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능이론에 따라 후보자 설득전략의 분석단위는 주장, 공격, 방어의 세 가지 설득전략으로 구성하고, 각 전략을 기능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후보자의 설득전략 분석유목을 <표 6>에 정리하였다.

---

1) 신뢰도 $= \frac{\text{코더수} \times \text{코더 간 일치항목수}(M)}{\text{코딩 항목수}(N_1 + N_2)}$

2) 관찰빈도가 기대빈도와 유의미하게 다른지 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료가 빈도로 주어졌을 때, 특히 명목척도 분석에 사용된다.

$\chi^2 = \Sigma \frac{(O-E)^2}{E}$ (O= 관찰빈도, E= 기대빈도)

<표 6> 후보자의 설득전략 분석유목

주장	기능	●칭찬: 자신의 주장이 올바르고 훌륭하다는 것을 높이 평가 ●자랑: 자신의 주장이나 행동이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냄 ●권유: 자신의 주장을 화제로 삼아 상대 후보를 설득하기 위한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
	유형	●사실적 주장: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에 대한 주장 ●가치적 주장: 주어진 대상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결론짓는 진술 ●방침적 주장: 주어진 주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당위적 결론
공격	기능	●비평: 상대 후보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가치지향적 비판 ●비난: 상대 후보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것
	유형	●비방(흑색선전): 메시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모략, 비방 또는 흑색선전에 가까운 정도의 표현 ●주관적 공격: 주관적,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내용이나 의견. 흑색선전은 아니지만 허용될 수 있는 표현 ●사실적 공격: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공격
방어	기능	●부정: 상대 후보의 공격에 대해 단순히 부정하는 것 ●회피·전가: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강조하며 책임소재를 타인이나 집단, 정부로 넘기는 표현 ●전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높은 차원의 가치로 승화시켜 대중의 관심을 다른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 ●폐기: 정보의 부재나 상황에 대한 통제력 부족을 고려하는 것 ●인정: 이미지 회복을 위해 잘못한 행위에 대해 고백하고 용서를 청함 ●최소화: 잘못된 행위와 관련된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는 것 ●차별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행위임을 강조하는 것
	유형	●주관적 방어: 상대 후보의 공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적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와 같은 식으로 반박하거나 방어하는 내용 ●사실적 방어: 상대 후보의 공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방어하는 내용

기능이론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실시간 채팅에서 유권자들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응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후보자의 발언에 동조하거나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장점을 알리는 권유 등의 반응은 긍정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후보자의 토론 태도를 문제 삼거나 후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교정, 다른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거론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종용하는 책망, 후보자의 발언에 후보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맞비난은 부정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판단을 보류하는 유예나, 별도의 가치 판단 없이 후보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는 반응은 중립적 반응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표 7> 유권자 반응 분석유목

긍정적 반응	기능	● 동조: 후보의 주장이 올바르고 훌륭하다는 것에 호응 ● 인정: 후보의 주장이나 행동이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수긍 ● 권유: 후보의 주장을 화제로 삼아 다른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주장에 대한 의견이나 정보를 제시 ● 지원: 후보의 주장이나 사실적 공격, 사실적 방어 유형의 발언 중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후보자를 대신하여 다른 유권자들에게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
	유형	● 사실적 주장: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에 대한 주장 ● 가치적 주장: 주어진 대상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결론짓는 진술 ● 사실적 공격: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공격 ● 사실적 방어: 상대 후보의 공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방어하는 내용
부정적 반응	기능	● 반박: 후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가치지향적 비판 ● 교정: 허위사실이나 근거가 부족한 발언, 또는 부적절한 토론 태도에 대하여 정정이나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 ● 책망: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거론하면서 다른 유권자들에게 지지 철회를 종용하거나 후보자의 주장에 동조하지 말 것을 권유하거나 호소 ● 맞비난: 후보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것

	유형	● 비방: 메시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모략, 비방 또는 흑색선전에 가까운 정도의 표현 ● 주관적 공격: 주관적,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내용이나 의견. 흑색선전은 아니지만 허용될 수 있는 표현 ● 주관적 방어: 상대 후보의 공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적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와 같은 식으로 반박하거나 방어하는 내용
중립적 반응	기능	● 유예: 후보자의 주장에 활용된 근거의 사실 여부나, 설득전략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보류 ● 요약: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별도의 가치 판단이나 감정적 반응 없이 후보의 발언 내용만을 정리
	유형	● 유보: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더 들어보자'와 같은 식으로 반응하는 내용 ● 보도: '어떤 후보자가 특정 시점에 무슨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내용

후보자의 설득전략 중 칭찬은 후보자가 자신의 성품이나 자질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사전략이며, 자랑은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수사전략이다. 최소화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발언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이를 축소하고자 사용하는 수사전략이다. 차별화는 후보자가 자신과 비슷한 입장을 가진 다른 후보자 또는 특정 집단과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전략이다.

유권자 반응 중 동조는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정은 후보자의 업적이나 토론 태도, 토론의 수준을 칭찬하는 경우이다. 권유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장점과 업적을 다른 유권자들에게 알리면서 대선후보로 선출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지원은 후보자의 주장이 타당함을 다른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경우이다. 분석대상 토론회에 나타난 후보자의 설득전략과 유권자 반응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8> 후보자의 설득전략 분석유목 예시

주장	기능	●칭찬: 청년실업문제, 바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제가 바로 우리 당의 적통 후계자입니다. ●자랑: 당이 저를 버렸을 때에도 험지에 가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권유: 지금 같은 당 후보들끼리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인 분들 아닙니까. 후보님들, 우리는 원팀이 되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비난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유형	●사실적 주장: 제가 당 대표 시절, 혁신성장추진위원장 자격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새만금 그린 뉴딜 비전이 자리잡게 된 것이죠. ●가치적 주장: 어떤 공약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약을 잘 지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방침적 주장: 지역 발전을 위해서 AI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차, 해양장비, 농생명 산업과 같은 발전 잠재력이 큰 산업들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기능	●비평: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방금 후보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비난: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습니다.
	유형	●비방(흑색선전): 후보님께서는 여당이십니까 야당이십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꼭 반대 세력 같으신데. ●주관적 공격: 사건의 본질은 불로소득인데, 언론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후보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적 공격: 국부펀드 유치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기구통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국투자공사를 해당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작계5015에 대해서 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작계5015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대북계획입니다. 작계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방어	기능	●부정: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책임회피·전가: 전직 판검사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화천대유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책임입니다. 특검을 도입하여 하루빨리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전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인 저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폐기: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진행은 민간기업에서 하였고, 성남시장도 아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인정: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네거티브 선거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큰 목표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최소화: 손바닥에 쓰인 '王'자는 저를 지지하시는 할머니들께서 격려차 잘되라고 써 주신 것입니다. ●차별화: 최순실 사건 수사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정당한 것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형	●주관적 방어: 보수언론이나 야당, 보수정치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적 방어: 제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예전과 달리 권한이 제한되어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다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표 9> 유권자 반응 분석유목 예시

긍정적 반응	기능	●동조: 맞습니다. 후보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무야홍, 어대윤. ●인정: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정책 얘기를 주로 하네. 솔직히 이낙연 후보가 문재인 정부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총리 역할 했지. ●권유: 솔직히 박근혜 탄핵은 정당하지 않나? 우리 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기려면, 탄핵정국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박근혜 지지자들이 듣기에 유승민·하태경 후보 말하는 게 맘에 안들어도, 아닌 건 아닌거지. ●지원: 솔직히 야당에서 이재명 후보 어떻게든 까내려고 몸통이네 뭐네 하지만 나온 증거가 없지 않나? 이재명 후보 말대로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 게이트다. 누가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나?
	유형	●사실적 주장: 유승민은 다른 후보의 질문에 막힘이 없다. ●가치적 주장: 역시 윤석열/홍준표/유승민/황교안이 답이다. ●사실적 공격: 현재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후보들 왜 이렇게 많은지, 유승민 후보처럼 공부 좀 하세요 다들. ●사실적 방어: 복지 확대하자고 기본소득 이야기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기분소득이라고 지적했듯이 일 안하는 사람이나 일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돈 받으면 일할 이유가 어딨나?
부정적 반응	기능	●반박: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은 솔직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일단 세금이 엄청 늘어날 텐데. ●교정: 위장당원이 증가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증거가 있는 건가? 그래

		도 같은 경선 후보한테 은근슬쩍 말을 놓는 건 아닌 것 같다. ● 책망: 토론보고 제대로 판단 좀 해라. 윤석열 지지자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토론 보고도 윤석열 외치시나. 한심하네. ● 맞비난: 유승민은 배신자 아닌가? 배신자 말은 들을 필요 없다.
	유형	● 비방: 보기 싫다. ● 사실적 공격: 정책 들으러 왔는데 대장동 토론회네. 선거 때만 되면 공항 타령. 너무 공약이 방대하네. ● 주관적 공격: 아무 대책 없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 주관적 방어: 말꼬리 잡지 마라.
중립적 반응	기능	● 유예: 고발사주는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제보사주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도 조사한다니까 공수처에서 결정 내줄 때까지는 지켜봐야지. ● 요약: 방금 전까지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추미애 vs 이낙연-박용진 후보 발언 서로 주고 받았어요. 다른 분이 나중에 토론회 주요 장면 링크 정리해 주실 거예요.
	유형	● 유보: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더 들어보자'와 같은 식으로 반응하는 내용 ● 보도: '어떤 후보자가 특정 시점에 무슨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내용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결과

1. 후보자의 설득전략 차이

1) 더불어민주당

<연구가설 1-1>은 후보자들이 토론에서 주장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고, <연구가설 1-2>는 후보자들이 공격전략 중 비평을 비난보다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아래의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9차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주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설득전략

단위: 건(%)

설득전략	발언 후보					합계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주장	113(72)	75(55.1)	72(67.3)	86(81.1)	84(90.3)	430(71.8)
공격	17(10.8)	36(26.5)	35(32.7)	18(17)	9(9.7)	115(19.2)
방어	27(17.2)	25(18.4)	0	2(1.9)	0	54(9)
합계	157(100)	136(100)	107(100)	106(100)	93(100)	599(100)

χ^2=84.054(p<.001), df=8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후보가 주장 중심의 설득전략을 사용하였다.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추미애, 이낙연 후보가 공격 전략을 다른 후보에 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미애 후보, 박용진 후보, 김두관 후보는 방어전략을 거의 사용

하지 않았다. 박용진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모든 후보에게 정책질문이나 정보, 특정 사안에 대한 상대 후보의 의견을 묻는 형식의 공격(비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후보로부터 공격을 거의 받지 않아 방어 전략의 사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번 경선에서는 초반부터 원팀 협약식을 여는 등 경선 경쟁 과열로 인한 내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후보들도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개인 채널이나 토론회의 기조발언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토론회 초반, 사회자가 후보자들에게 정책 중심의 토론을 당부하고 상호 비방하지 않는 토론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대체로 공방전은 자제하고, 주장을 통해서 상대 후보를 설득하고 유권자에게 자신을 각인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세부 설득전략

단위: 건(%)

설득전략		발언 후보					합계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주장	칭찬	8(7.1)	5(6.7)	3(4.2)	6(7)	2(2.4)	24(5.6)
	자랑	27(23.9)	21(28)	12(16.7)	11(12.8)	7(8.3)	78(18.1)
	권유	78(69)	49(65.3)	57(79.2)	69(80.2)	75(89.3)	328(76.3)
	합계	113(100)	75(100)	72(100)	86(100)	84(100)	430(100)
	χ^2=18.766(p<.001), df=4						
공격	비평	7(41.2)	23(63.9)	13(37.1)	17(94.4)	9(100)	69(60)
	비난	10(58.8)	13(36.1)	22(62.9)	1(5.6)	0	46(40)
	합계	17(100)	36(100)	35(100)	18(100)	9(100)	115(100)
	χ^2=25.254(p<.001), df=4						
방어	부정	3(11.1)	11(44)	0	0	0	14(25.9)
	회피·전가	8(29.6)	1(4)	0	0	0	9(16.7)
	전이	2(7.4)	7(28)	0	0	0	9(16.7)
	폐기	9(33.3)	0	0	0	0	9(16.7)
	인정	0	1(4)	0	0	0	1(1.9)
	최소화	2(7.4)	1(4)	0	0	0	3(5.6)
	차별화	3(11.1)	4(16)	0	2(100)	0	9(16.7)
	합계	27(100)	25(100)	0	2(100)	0	54(100)

이어 후보별로 세부 설득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주장 전략의 경우, 전체적으로 권유(76.3%), 자랑(18.1%), 칭찬(5.6%) 순서로 활용되었다. 후보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후보가 권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날 토론에서 후보들은 대부분 자신의 발언시간을 상대 후보가 제시한 주장을 화두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의 발언을 주로 사용하였다. 발언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질문시간을 활용하여 주장의 비중이 높은 발언을 한 셈인데, 이에 따라 사회자가 후보자들에게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표 12>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주장-유권자 반응 사례

<table>
<tr><th>발언 후보</th><th colspan="2">발언 내용</th></tr>
<tr><td>이재명</td><td colspan="2">“역대 어떤 선거에서도 제시된 공약들이 참 많았습니다. 문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약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에 집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공직자로서, 공약의 95%를 다 지켜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친일부역을 하거나 독재권력에 부역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았고, 지금도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존중받고, 더 잘 사는 나라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td></tr>
<tr><td rowspan="2">유권자 반응</td><td>긍정</td><td>• 자신에게 솔직하면 국민에게도 솔직할 수 있다, 이재명만 가능합니다.
• 이재명은 합니다, 대통령 가자!
• 나는 믿을 수 있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 이재명 만세! 이재명이 답이다.
• 이재명 최고!</td></tr>
<tr><td>부정</td><td>• 이재명 남판교 비리! 파헤쳐라!
•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이 알았다면 이명박급 비리, 이걸 이재명이 몰랐다면 박근혜급 무능.
• 이재명은 못합니다.
• 나도 870만원 낼 테니 100억 다오! 재명아!
• 수 조원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경기도 판교 대장동 금싸라기 땅 개발사업에 급조한 직원 몇 명뿐인 화천대유가 선정된 것 자체가 비리 개연성이 매우 높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은 모르쇠인데, 최종승인권자는 성남시장 이재명이었음.</td></tr>
<tr><td>이낙연</td><td colspan="2">“제가 지사 시절에 에너지 밸리 구성을 발표하고, 지사로서 310개 에너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더 늘어 현재는 503개 기업이 혁신도시에</td></tr>
</table>

	와 있습니다. 새만금 예산 많이 늘렸고요. 새만금 개발공사를 신설해서 공공 유도 매립으로 바꿨고, 새만금 개발청을 세종에서 새만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공약들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반응	긍정	• 유능하고 깨끗한 이낙연. • 내 삶을 지켜주는 이낙연. • 정책의 이낙연. • 단지 상식적인 사람을 원한다. 이낙연이다. • 안전하고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 이낙연. • 책임총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국정운영 경험, 인품 모두 이낙연입니다.
	부정	•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 전남도지사때 뭐했지. • 전남도지사 시절 공약이행률 꼴찌, 전남도지사 시절 부패지수 1위. • 엄중하느라 뭘 한다는 거야.
추미애	“추미애의 21세기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핵심기조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에 이어서 초광역을 더하여 국가균형발전 4.0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일자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입니다.”	
유권자 반응	긍정	• 추미애님을 응원합니다. • 추미애는 계속 지지한다. • 추미애 장관님 파이팅! • 추미애 정말 똑똑합니다. • 추다르크 화이팅!
	부정	• 정책이 없는 추미애, 급조한 티가 난다.
박용진	“저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그동안 약속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백 년짜리 장기비전을 합쳐서 새로운 빅 플랜을 구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3금융중심지 유치하도록 하겠고요. 대한민국이 재테크를 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권자 반응	긍정	• 박용진 똑똑하다.
	부정	• 실천된 거 있나.
김두관	“호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두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호남의 손을 놓지 않고 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호남권 메가시티로 호남의 1인당 GRDP를 수도권에 버금가게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호남을 인공지능도시로 만들고, 전북혁신도시를 확장하고 제3금융중심도시로 지정하겠습니다.”	
유권자 반응	긍정	• 김두관 화이팅!
	부정	• GRDP를 수도권과 비슷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급차이가 얼만데.
	중립	• 국민의힘은 무조건 안 뽑는다. • 일자리 블루오션, 재자연화 공약하라. •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공격 전략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비평(60%)이 비난(40%)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김두관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비평 전략만 사용하였고, 공격 사용횟수가 가장 많았던 이낙연 후보도 비평(63.9%)을 비난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을 집중하면서, 추미애 후보의 공격에 공격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 횟수가 증가하였다. 추미애 후보(62.9%)와 이재명 후보(58.8%)는 비난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후보들의 전체 발언 중 주장이 차지하는 비중(71.8%)이 매우 높은 것에서 드러나듯, 전체적으로 후보들이 공격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격과 방어는 실질적인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 박용진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상대 후보의 의견을 묻는 사실상 권유에 가까운 유형의 비평을 사용하였다.

<표 13>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공격-유권자 반응 사례

<table>
<tr><th>발언 후보</th><th colspan="2">발언 내용</th></tr>
<tr><td>이재명</td><td colspan="2">“제가 우리 이낙연 후보님한테도, 이 말씀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개발은 사실 LH나 이런데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민간에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엄청난 개발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통제할 방법이 법으로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최대한 인허가 권한을 행사해서 그나마 상당 부분 환수했고, 2015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없었다면 1조 5천억을 투자했던 그 집단들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졌으면, 그 회사 망했습니다.”
(민간기업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님, 법률·법학 공부하셨지요? 1억짜리 자본금 회사가 500억 투자 받아서 250억 남겼으면, 그 회사는 (투자금) 대비 50% 이익입니까? 아니면 (자기자본) 1억에 대해서 250배 이익입니까? 그거 다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로 ‘왜 설계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내부의 민간투자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고요. 관심 가져도 안 되고, 우리는 성남시, 사전적으로 확정된 5천 5백억, 처음에는 4천 5백억, 이걸 나중에 인가권을 행사해서 천억 더 환수했다는 겁니다.”</td></tr>
<tr><td>유권자 반응</td><td>긍정</td><td>• 능력껏 돈 돌려 받는거지.
• 이재명 지지합니다.</td></tr>
</table>

		• 선한 영향력 이재명 • 개혁의지 있는 이재명만이 답이다! 비리가 있었다면 박근혜 때 털렸지!
	부정	• 답변이나 똑바로 해. • 말장난 하지 마라. • 성남시가 토지랑 인허가 민간사업자에게 다 해주고 뭔소린지. • 말 돌리지 마라. • 근데 국힘게이트라며? • 이재명박. • 설계 주도자 이재명 지사. • 질문에 답을 하세요. 엉뚱한 이야기로 시간 끌지 마세요.
이낙연	“이재명 후보에게 여쭙습니다. 저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설명을 듣고, 안도하면서 질문합니다. 우선 대장동, 이른바 남판교 개발비리에 대해서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이익 환수다, 모범적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어제는(18일)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랬어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검경의 수사를 촉구하셨어요. 본인도 수사를 자청하셨고요. 그러면 이유가 어디에 있든, 또는 성격이 무엇이건 빨리 수사되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당의 분위기를 보면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에 굉장히 소극적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후보님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건 (민간회사가 개발이익으로) 1100배가 넘는 이익을 봤다는 것이, 국민들께는 납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설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1100배의 이익을 본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유권자 반응	긍정	• 답은 이낙연이다. • 이낙연은 책임집니다. • 이낙연 후보님 지지합니다. • 그러게. 성공적 공공사업이라더니 왜 갑자기 국힘게이트가 됨? • 속 시원히 밝혀주세요.
	부정	• 이낙연 무능하니까 네거티브로 이겨보려고 애쓰네. • 이낙연 후보님, 진작에 모든 개혁 했어야지요. • 네거티브 낙연. • 이낙연이 한 일은 뭐야? • 유도신문하는 이낙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원팀 훼손하지 말자.
추미애	“네. 저도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의혹들이 해소돼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간 개발로 개발이익이 전부 몽땅 민간에 넘어갈 뻔했던 사건을 그나마 개발방식을 바꿈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개발이익을 반반씩 나눠 가졌다는 것이 사실 아닐까 싶고요. 또 2010년도 당시는 공공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때였죠, 여러 여건상. 그래서 (대장동 개발은) 지혜로운 개발 방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언론, 심지어 이낙연	

	후보께서도 이재명 후보의 개인 비리 문제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요,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제 걱정은, 윤석열의 국기문란 사건을 덮으려는 야당의 꼼수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 하는 야당의 선거전략이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권자 반응	긍정	• 이재명·추미애 파이팅! • 추미애가 옳았다. • 역시 추미애 정확하다. • 그치 이게 맞지. • 추미애 대장군님 파이팅! • 논리적인 추미애!
	부정	• 의혹이 해소되고 있대. (웃음) • (웃음) 지혜로운 개발방식이래. (웃음)
박용진	“이재명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언론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대장동 관련한 기사를 보고 계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해명할 시간도 좀 드리고, 궁금한 것을 풀어보는 시간도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성남판 LH 사태 아닌가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남판 LH 사건의 칼끝이 우리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 제가 기사도 많이 보고, 관련 자료도 많이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집 값이 너무 올라서 내집마련 자체가 안된다는 허탈함이 있고, 개발이 되고 나면 이익은 대기업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가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시장 시절에 구상하신 민관개발복합 방식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등 일부가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 반응	긍정	• 박용진 대통령 간다. • 박용진이 좀 아는 듯. 굿. • 박용진 잘한다. • 박용진 잘하네, 담에 꼭 꿈 이루세요.
	부정	• 이낙연 편들기 박용진. • 이제 그만 사퇴좀 해라. 용진아 부끄럽지 않니? • 박용진 너 국짐이냐? • 용진아, 대세에 따라라.

방어는 유력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차순위후보인 이낙연 후보만 사용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추미애·박용진·김두관 후보는 방어 발언을 하지 않았다. 특히 추미애 후보는 대부분의 공격 발언을 이낙연 후보에게 집중하였는데, 이낙연 후보의 공격에는 주장이나 공격 전략을 사용하며 대응하고 방어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표 14>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방어-유권자 반응 사례

<table>
<tr><th>발언 후보</th><th colspan="2">발언 내용</th></tr>
<tr><td>이재명</td><td colspan="2">“이 사건을 정확하게, 쉽게 규정을 하면, 토건세력들과 결합한, 당시 한나라당 게이트가 숨어있다가 저에게 태클을 당했고, 결국은 기대했던 이익의 일부분 밖에 취득하지 못했고, 결국 제가 공공환수로 5503억원 이상의 이익을 국고에 환수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과거의 토건 세력들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땅을 이미 다 사가지고, LH가 공공개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신영수 전 국회의원 통해서 로비를 해서, 공공개발을 포기해서 민영개발하도록 확정됐습니다. 제가 그때 당선이 되는 바람에, 그들은 예측을 못했는데, 제가 당선이 된 후에 이 민간개발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이익이 민간에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감리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엄청난 토지수용 보상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민간에 공모를 해 가지고 가장 성남시에 이익을 많이 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기회를 드렸고요. 그것도 원래는 4천5백억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너무 적어서 제가 나중에 천억 정도 더 환수했습니다.”
(수사요구 후 자료제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사업은 성남시가 한 것이고, 저는 성남시장이 아니고요. 경기도에는 이와 관련한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td></tr>
<tr><td rowspan="2">유권자 반응</td><td>긍정</td><td>● 이재명 지사 야무지게 일 잘한다. 파이팅!
● 이재명 대통령!
● 화천대유 국힘 게이트, 야당 게이트!
● 국민을 위한 일은 누가 뭐래도 강한 추진력으로 반드시 해내는 이재명!
● 이재명이 답이다.
● 잘했어 이재명.
● 화천대유는 검찰, 언론, 국짐당 위원들이 해먹은 것임!</td></tr>
<tr><td>부정</td><td>● 화천대유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 이재명 게이트.
● 화천대유? 투자의 귀재 이재명이 있으면 3.5억으로 4천억 받는다.
● 이재명은 (판교 떴다방) 합니다.
● 화천대유 결재는 누구?
● 본인이 성남시장을 했잖아?
● 수사하라 해놓고 자료제출 안하잖아!</td></tr>
</table>

이낙연	(언론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릴까요? 언론도 한둘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이 수 일째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절대다수 국민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걱정하고 분노하는 것이라면, 정치인이 당연히 관심을 갖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를 비호하기 위해 제기한 의혹이며 이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다수 언론과 절대다수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그 짐을 덜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재명 후보께서 본인은 관계없고 오히려 본인이 잘한 일이라고 하시니,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 그것도 매우 절제된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 그것마저 하지 말고 덕담할까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보수언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중앙언론들이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부가 야당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권자 반응	긍정	• 이낙연을 대통령으로! • 잘한다 이낙연! • 이낙연 말이 맞네.
	부정	• 추풍낙엽 • 분노 안한다. • 너한테 분노한다. • 낙엽에게 분노한다. • 당신만 분노합니다. • 이낙연님 이제 그만하시죠, 보기 힘들어요. • 언론 말만 듣나.

<연구가설 1-3>은 후보자들이 방어 전략 중 부정, 차별화, 폐기 전략을 인정, 회피·전가, 전이, 최소화 전략보다 많이 사용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폐기(9회, 33.3%)와 회피·전가(8회, 29.6%)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낙연 후보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의 공격에 부정(11회, 44%)하거나,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이(7회, 28%)중심의 방어전략을 사용하였다. 두 후보가 주로 사용한 방어 발언 유형의 차이는 있지만, 폐기와 회피, 부정·전이 사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진 않았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으므로, ‘모든 후보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고 노력한다.'는 기능이론의 가정을 고려하면 후보자들은 자신이 유력후보자보다 나은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확보하고자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을 집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순위 후보인 이낙연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의 공격이 이낙연 후보에게 집중되었고, 이낙연 후보는 두 후보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언횟수가 증가하였다.

<표 15>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공격·방어대상

단위: 건

발언후보	공격대상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합계
이재명	-	17	0	0	0	17
이낙연	19	-	16	1	0	36
추미애	1	32	-	1	1	35
박용진	11	2	1	-	4	18
김두관	1	1	1	6	-	9
발언후보	방어대상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합계
이재명	-	20	0	7	0	27
이낙연	10	-	14	1	0	25
추미애	0	0	-	0	0	0
박용진	0	1	0	-	1	2
김두관	0	0	0	0	-	0

추미애 후보는 전체 35회의 공격 횟수 중 32회를 이낙연 후보에게 집중하였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36회의 공격 횟수 중 19회를,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17회의 공격을 모두 사용하였다. 박용진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먼저 대장동 이슈를 언급하며 공격 발언을 하였지만, 비평을 주로 사용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두관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권유형식의 비평만 사용하며 후보자 이슈 관련 발언은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후보가 상대 후보의 공격에는 되도록 주장 전략을 사용하면서 방어 발언은 아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방어 전략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2) 국민의힘

국민의힘 3차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주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후보가 주장 중심의 설득전략을 사용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 토론 상대자로 자주 지목되어 주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윤석열·홍준표 후보 모두에게 공격발언을 한 유승민 후보가 공격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희룡 후보, 황교안 후보는 방어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두 후보는 정책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으며, 토론회의 규칙을 지키는 수준에서 권유에 가까운 형식적 공격(비평, 각 9회)을 사용하였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아 방어 전략의 사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표 16> 국민의힘 후보자 설득전략

단위: 건(%)

설득전략	발언 후보					합계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주장	120(74.5)	80(69.6)	106(70.7)	87(90.6)	48(84.2)	441(76.2)
공격	19(11.8)	18(15.7)	37(24.7)	9(9.4)	9(15.8)	92(15.9)
방어	22(13.7)	17(14.8)	7(4.7)	0	0	46(7.9)
합계	161(100)	115(100)	150(100)	96(100)	57(100)	579(100)

χ^2=43.546(p<.001), df=8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경선 과열로 인한 내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후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개인 채널이나 인터뷰, 기자회견에서는 이따금 상대 후보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지만,

토론회에서는 상호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간혹 자신에게 언성을 높이며 공세를 이어갈 때도 대체로 상대 후보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소 속내를 숨기지 않고 직설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홍준표 후보의 공격발언 횟수(18회)도 윤석열 후보(19회)와 비슷하게 집계되었다. 홍준표 후보는 비평을 13회, 비난을 5회 사용하였다.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기자회견에서처럼 경쟁후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직접 말하기보다는, 네거티브 역풍 가능성을 감안하여 토론을 통해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국민의힘 경선 초반부터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다른 후보들보다 토론에서 강한 면모를 갖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게 공격 전략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발언 횟수(37회)가 증가하였다.

<표 17> 국민의힘 후보자 세부 설득전략

단위: 건(%)

설득전략		발언 후보					합계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주장	칭찬	1(0.8)	0	3(3.8)	6(6.9)	1(2.1)	11(2.5)
	자랑	1(0.8)	3(3.8)	3(3.8)	5(5.7)	0	12(2.7)
	권유	118(98.3)	77(96.3)	100(94.3)	76(87.4)	47(97.9)	418(94.8)
	합계	120(100)	80(100)	106(100)	87(100)	48(100)	441(100)
	χ^2=17.020(p=.0019), df=4						
공격	비평	16(84.2)	13(72.2)	27(73)	8(88.9)	6(66.7)	70(76.1)
	비난	3(15.8)	5(22.8)	10(27)	1(11.1)	3(33.3)	22(23.9)
	합계	19(100)	18(100)	37(100)	9(100)	9(100)	92(100)
	χ^2=2.284(p=.683), df=4						
방어	부정	9(40.9)	6(35.3)	3(42.9)	0	0	18(39.1)
	회피·전가	1(4.5)	0	0	0	0	1(2.2)
	전이	0	2(11.8)	1(14.3)	0	0	3(6.5)
	폐기	3(13.6)	0	0	0	0	3(6.5)
	인정	0	2(11.8)	0	0	0	2(4.3)
	최소화	4(18.2)	4(23.5)	1(14.3)	0	0	9(19.6)
	차별화	5(22.7)	3(17.6)	2(28.6)	0	0	10(21.7)
	합계	22(100)	17(100)	7(100)	0	0	46(100)

후보별로 세부 설득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권유(94.8%), 자랑(2.7%), 칭찬(2.5%) 순서로 활용되었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후보들은 권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국민의힘 토론회는 정책발표시간 없이 주도권 토론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업적이나 자질을 홍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유력후보자들은 실질적 경쟁상대와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토론에 임했다. 비유력후보자들은 주장을 통해 정당 이미지를 관리하거나 유권자들에게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알리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표 18> 국민의힘 후보자 주장-유권자 반응 사례

발언 후보	발언 내용	
윤석열	(곽상도 의원 탈당에 대해) “저는 뭐, 하여튼, 제명이든 출당이든, 어쨌든 국민의힘 당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 제명에 대해) “지도부가 뭐, 미국에 계시니까.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계5015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글쎄요, 저는 뭐,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한미연합, 그,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홍준표: 아니, 작계 5015 상황이 되면, 이미 얘기가 끝난 거예요.) (박근혜 사면에 대해) “이제 이 정도 고생하셨으면, 이제 댁에 돌아가게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유권자 반응	긍정	• 그릇은 윤 후보님이 더 좋아요. • 윤석열 파이팅! •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잘한다!
	부정	• 윤도리(윤석열 후보의 토론 버릇-고개를 젓는 행동-에 대한 비아냥) • 우기기윤 • 모르면 모른다고 좀 (웃음) • 뇌정지 (웃음) • 저렇게 하나도 모르면서 나와가지고 (웃음)
홍준표	(이재명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합니다. 특검을 하지 않으면, 그거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정치인들이 모인들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당이 특검을 밀어붙여서 특검을 해야 합	

<table>
<tr><td></td><td colspan="2">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법적인 카르텔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주를 이루고, 그것도 관할 사건의 검찰들입니다. 이걸 특검 아니고는 어떻게 밝히겠어요?”
“작계 5015가 되면 미국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이게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래 작계 5029, 5027 다 있었는데, 이게 다 폐기되고, 작계 5015가 지난 2016년도 마지막에 생겼어요. 여태 모든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계획을 세울 때는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작계 5015는 남침하기 전에, (우리가) 선공을 하는 거예요. 선공을 하고 나면, 참수작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대통령으로서 전쟁 개시 직전에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대국민 발표를 하는거예요.”</td></tr>
<tr><td rowspan="2">유권자 반응</td><td>긍정</td><td>• 홍준표 대통령!
• 무야홍만이 살길이다.
• 특검 가자.
• 멋지다 홍홍! 무대홍!
• 개콘보다 더 재밌어, 홍준표 대통령 화이팅!</td></tr>
<tr><td>부정</td><td>• 홍준표 윤을 너무 가르치는 거 아님?
• 홍준표 하나 준비해 왔나 보네.
• 아니 과외하고 있음? (웃음)</td></tr>
<tr><td>유승민</td><td colspan="2">(부가세에 대한 입장변화 지적에 대해) “병 주고 약 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2017년 대선에 소득세와 법인세 누진구조를 강화하자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주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로 고소득층 소득세 올리고, 대기업 법인세 올린 그거이기 때문에, 이미 그게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님께서, 제가 늘 주장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또,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늘 이렇게 주장했는데, 윤석열 후보께서는 반대하시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부가세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 중복지를 하는데, 세 번 부담이 필요하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같이 국가채무를 늘릴 것이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td></tr>
<tr><td rowspan="2">유권자 반응</td><td>긍정</td><td>• 유승민 달리자, 파이팅!
• 경제학 박사 유승민!
• 유승민은 강하다.
• 유승민>>>>윤석열
• 경제는 역시 유승민 대통령.</td></tr>
<tr><td>부정</td><td>• 유승민 그만 좀 보자.</td></tr>
<tr><td>원희룡</td><td colspan="2">“네, 지금 화천대유 부동산 부패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로 찌르고 있고요, 그 의혹의 시선이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사건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쏠리고 있습니다. 성역 없이 국정조사, 특검, 뭐 다 해야 되겠지만, 어느</td></tr>
</table>

	세월에 되겠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의, 이것은 적반하장 식의 어떤 꼬리 자르기, 내지는 거꾸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이런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권경애 변호사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원고를 읽으며)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누구든 뜻이 있으면 화천대유 특별팀을 꾸려주셨으면 좋겠다', 부동산 부패의 실체를 드러내고, 근원적 대책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작업인데, 어, 우리 권 변호사가 보기에는, '윤석열·유승민·원희룡 후보 캠프가 공조하면 가장 좋고, 누구든 뜻이 있는 캠프에서 했으면 좋겠다', (질문 없이 발언이 길어져 사회자 지적)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님, 유승민 후보님, 화천대유 특별팀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유권자 반응	긍정	• 머리는 원희룡 제일 최고.
	부정	• 원희룡도 안상수처럼 가네. • 당이 (특별팀을) 해야지요.
	중립	• (국민의힘 후보들)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라 (잘할 겁니다).
황교안	"대장동 특혜 사업은, 화천대유와 SK증권, 개인 투자자들이, 시행사인 성남의뜰 의결권을 독점하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에 공모한게 사건의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이재명 지사는, (원고를 읽으며) 특수 관계자들로 급조된 시행사로 하여금, 원주민들에게 헐값에 토지를 수용한 뒤에, 4천억이 넘는 배당금을 챙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헐값에 분양 특혜를 줌으로써, 배당금과 별도로, 약 2천3백억 원의 분양수익을 몰아주는 등, 지분 7퍼센트로 총 6천3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재명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없이 발언시간이 길어져 사회자 지적) 이재명 방지법을 제정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 경험이 많은, 홍준표 의원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유권자 반응	긍정	• 황교안 대표님 지지합니다. • 최고 황교안. • 용기있고 정직한 황교안. • 황교안 답이다. • (보고 읽는다는 다른 유권자의 지적에 대해) 저걸 어떻게 외우냐, 그냥 좀 봐라, 저런 정보는 읽는게 더 신뢰감이 있다. • 국민의 자존감 황교안 대통령
	부정	• 황교안도 전관예우로 10억 넘는 돈 챙겼다고 들었습니다. • 앵커하려고 앉아있어? • 그냥 보고 읽어라.

공격에서는 전체적으로 비평(76.1%)이 비난(22.9%)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공격은 유력후보들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모든 후보들이 비평을 비난보다 많이 사용한 가운데, 윤석열·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서로의 주도권 토론에서만 비난을 사용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유승민 후보의 공격에 공격으로 대응하면서 발언 횟수가 증가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공격을 집중하였다.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홍준표 후보에게 공격을 집중하였다.

<표 19> 국민의힘 후보자 공격-유권자 반응 사례

발언 후보	발언 내용	
윤석열	“유승민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고를 읽으며) 저는 그,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그, 부가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부가세 감면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 후보님께서는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2017년에는 그, ‘소득세 법인세 누진구조를 강화하고 부가세는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하시다가, 이번에는 ‘부가세가 복지증세의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체감 부담이 가장 크고, 역진적인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병주고 약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고를 읽으며) 경제 전문가로서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 철학이 바뀌신 건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른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유권자 반응	긍정	• 무야윤! • 윤석열 후보님 최고! • 부가세 내려라. • 윤후보님 대통령 갑니다. 파이팅! • 윤석열 진화했다.
	부정	• A4 안보면 질문도 못해요. • 부가세 높여야지. • 읽지만 말고! • 너무 읽는거 아니냐. • 읽느라 바쁨. (웃음)
홍준표	“저한테 잘 질문이 안오는데, 제가 윤석열 후보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계 5015 아시죠? (윤석열: 네.) 작계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윤석열: 글쎄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니,	

<table>
<tr><td></td><td colspan="2">작계 5015 아신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국가 남침이라든가, 국가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계획?) 그게 아니고. 작계 5015라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 대북계획입니다. 대북계획인데, 작계 5015가 되면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화천대유 사건이 이렇게 심하게 된지 오래 됐는데, 총장 계실 때 그 범죄정보과를 통해서 첩보 받지 않으셨습니까?”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비난에 대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가만 있어봐요!”</td></tr>
<tr><td rowspan="2">유권자 반응</td><td>긍정</td><td>• 홍준표 파이팅입니다.
• 홍준표 대통령!
• 홍준표가 답이다.
• 최강의 보수지존, 프로페셔널홍 무대홍 화이팅!</td></tr>
<tr><td>부정</td><td>• 잘 안다고 성공하나?
• 공부시키네.
• 물어보는거 맞아?
• 질문하기도 전에 답하네.
• 준표형 귀 막고 할 말만 하네. 진짜 무대포홍이네.</td></tr>
<tr><td>유승민</td><td colspan="2">“윤석열 후보님, 질문하겠습니다. 그저께 토론회에서, 사흘 전에(9월 23일), 주택청약가점 보증과 국민연금 크레딧, 그거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아니 인터뷰에서 발굴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명단만 잔뜩 보내주시고, 자료는 안 왔어요.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은 것에 대해서 당이 제명조치를 하기 전에, 본인이 탈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이거는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후보님, 지난번 토론 때 저한테 배신자 프레임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춘향인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허접하고 단순한 여자였다’, ‘탄핵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가셔서, 우리공화당 분들한테 환영을 받으시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느 모습이 진짜 홍준표 후보님 모습입니까?”
(윤석열 후보의 박근혜 사면 찬성에 대해) “그러면 45년 구형하시고, 이제 와서는 사면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td></tr>
<tr><td rowspan="2">유권자 반응</td><td>긍정</td><td>• 유승민 후보가 답이네요.
• 유승민은 민주당에 강하다.
• 유승민 정부 만세!
• 유승민 경제박사 똑똑함.</td></tr>
<tr><td>부정</td><td>• 유승민 아웃.</td></tr>
</table>

		• 유승민 짜증나네요. • 유배신. • 공부좀 해라 승민아. • 유승민 아웃! 더불어궤변당으로 고! • 유배신은 그런 네거티브는 안통한다. • 유승민이 할 말은 아니지.

방어는 유력후보인 윤석열·홍준표 후보와 차순위후보인 유승민 후보만 사용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아 방어 발언 사용이 관측되지 않았다. 황교안 후보는 토론회 마무리 발언 시간에 하태경 후보로부터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것'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그는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야말로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것'이라는 비난을 제기하였으나 토론회 마무리 직전의 상황이어서 별다른 반응은 관측되지 않았다.

<표 20> 국민의힘 후보자 방어-유권자 반응 사례

발언 후보	발언 내용	
윤석열	(공약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아니, 그 자료를, 그 자료가, 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 젊은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과, 인터뷰 대상자를 저희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인터뷰를 안 하고 조작했다는 얘깁니까?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궁금하면 제가 보내드리겠다 한 것이고." (화천대유에 대한 첩보를 사전에 받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받지 못했고요. 제가 총장할 때는, 일선에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만 남겨놓고, 정보열람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첩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서, 범죄정보활동 자체가 일선에서 인지를 할 때 (총장으로서) 허락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홍 후보님이 검사하실 때 상황과는 다릅니다." (박근혜 45년 구형과 사면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구형은 재판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면은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유권자 반응	긍정	• 윤석열 최고! •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총장님, 대선성공을 기원합니다. • 응원합니다 윤석열.
	부정	• 윤석열 보수주의 공부하시고.

		• 어찌 윤석열을 지지하십니까. • 도리도리윤. • 그걸(자료) 왜 못줘? (웃음) • 검찰총장이 몰랐다? • 답이 뭔가 답답하네.
홍준표	(박근혜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발언에 대해) “춘향인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그거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 뜻이고, (유승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나 홍준표 후보만 발언하고 마무리되었음) 허접하고 단순했다는 말은 최순실 보고 한 말입니다.”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는 지적에 대해) “2017년도까지는 경남 지사를 하다가, 당이 궤멸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여기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그 때는 다 뛰쳐나가 가지고, 당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선에 출마를 했고,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경제에 영향이 큰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취소를 했고, 모병제도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자전으로 바뀌었어요.”	
유권자 반응	긍정	• 홍준표 대통령으로! • 홍준표 이겨라! • 홍준표가 답이네요. • 역시 홍준표다.
	부정	• 홍준표 입이 거칠다. • 카멜레홍.
유승민	(제3지대 창당 주장에 대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총선 전에 저기 계시는 황교안 대표님하고 합당을 했잖아요. 제가 합당을 결심해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오래 해서, 새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 합당해서, 미래통합당이 돼서 총선을 치르고, 그 미래통합당이 그대로 지금의 국민의힘이 된 거죠.”	
유권자 반응	긍정	• 강하다 유승민! • 유승민 합리적. • 똑똑하다 유승민. • 유승민한테 질문 좀 수준 있게. (웃음) • 정치 초보들이 (유 후보와 상대도 안 되게) 어디다 질문이고?
	부정	• 유배신.

<연구가설 1-3>은 후보자들이 방어전략 중 부정, 차별화, 폐기 전략을 인정, 회피·전가, 전이, 최소화 전략보다 많이 사용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방어의 경우 윤석열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제기한 공약 유사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 및 특검 재직 당시 양형기준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정(9회, 40.9%), 차별화(5회, 22.7%), 최소화(4회, 18.2%), 폐기(3회, 13.6%)를 사용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정책에 대한 입장 및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일관성이 없다는 윤석열·유승민 후보의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정(6회, 35.3%), 최소화(4회, 23.5%), 차별화(3회, 17.6%), 전이·인정(각 2회, 11.8%)을 사용하였다. 유승민 후보는 최재형 후보가 제기한 21대 총선 당시 제3지대 창당 주장여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정(3회, 42.9%)을 사용하였고, 유력후보들과의 공방에서는 방어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세 명의 후보들이 부정을 다른 전략보다 많이 사용하고 회피·전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최소화와 차별화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21> 국민의힘 후보자 공격·방어대상

단위: 건

발언후보	공격대상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합계
윤석열	-	9	8	2	0	19
홍준표	14	-	2	2	0	18
유승민	19	14	-	1	0	37*
원희룡	2	2	2	-	0	9*
황교안	1	1	1	0	-	9*
발언후보	방어대상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합계
윤석열	-	10	10	2	0	22
홍준표	6	-	8	2	1	17
유승민	2	4	-	0	1	7
원희룡	0	0	0	-	0	0
황교안	0	0	0		-	1*

*안상수·최재형·하태경 후보 대상 공격·방어 횟수 포함

윤석열·홍준표·유승민 후보를 중심으로 공방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19회)와 홍준표 후보(14회)에게 공격을 집중했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8회, 홍준표 후보에게 2회로 상대적으로 적은 공격을 받았다. 또한 유승민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공격에 권유를 주로 사용하며 답변함으로써 방어 전략 사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원희룡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유력후보들에게 권유 형식의 비평만 사용하였고, 유력후보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않아 방어 전략 사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당시 윤석열·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으므로, '모든 후보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하고 노력한다.'는 기능이론의 가정을 고려하면 후보자들은 두 후보에게 공격을 집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유력후보에게 공격이나 질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여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비난 발언을 하거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경쟁후보로서의 면모보다는 소속 정당의 대변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2. 유권자 반응

1) 더불어민주당

<연구가설 2-1>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전략 중 주장 전략에 가장 관심을 보일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가설 2-2>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주장, 방어보다 공격에 부정적 반응을 더 나타낼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가설 2-3>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방어전략 중, 인정, 책임회피, 전이, 최소화보다 부정, 폐기, 차별화에 긍정적 반응을 더 나타낼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표 22> 설득전략에 따른 유권자 반응(더불어민주당)

단위: 건(%)

설득 전략	유권자 반응			
	긍정	부정	중립	합계
주장	1445(54.3)	1072(49.9)	85(100)	2602(53.1)
공격	1023(38.4)	476(22.1)	0	1499(30.6)
방어	193(7.3)	602(28)	0	795(16.2)
합계	2661(100)	2150(100)	85(100)	4896(100)

χ^2=499.17(p<.001), df=4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은 4896건의 반응 중 후보자들의 주장에 2602건(53.1%), 공격에 1499건(30.6%). 방어에 795건(16.2%)의 반응을 보였다. 전체 2661건의 긍정적 반응 중에서는 주장 1445건(54.3%), 공격 1023건(38.4%), 방어 193건(7.3%)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어 발언이 가장 적게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유권자들도 방어에 대해 가장 적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셈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방어 발언과, 이낙연 후보의 이재명 후보 검증에 대한 해명 발언이 오가는

시점에 방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증가하였다. 두 후보의 방어 발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토론 중반까지는 비슷하게 집계되다가 토론 막바지에 이재명·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함께 공격하는 모습이 관측되면서 이낙연 후보의 방어 발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증가하였다. 유권자들은 주장에 1072건(49.9%)의 가장 많은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고, 방어 602건(28%), 공격 476건(22.1%) 순서로 부정적 의견을 게시하였다.

김관규·박연진(2018)은 후보자들이 방어 전략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이유는 상대 후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공격 발언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보자가 방어 발언을 사용하면서 상대 후보의 공세에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시점에서는 응원 반응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토론 초반에는 두 후보를 응원·비난하는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나다가,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낙연 후보의 공격·방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증가하였다.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토론회의 흐름을 주도한 추미애 후보에게 응원 반응이 집중되면서 실시간 채팅창에서 점유현상이 나타났다.

<표 23-1> 후보자별 주장에 대한 유권자 반응

단위: 건(%)

발언 후보 (주장)	유권자 반응			
	긍정	부정	중립	합계
이재명	594(41.1)	432(40.3)	17(20)	1043(40.1)
이낙연	496(34.3)	473(44.1)	17(20)	986(37.9)
추미애	268(18.5)	60(5.6)	17(20)	345(13.3)
박용진	34(2.4)	66(6.2)	17(20)	117(4.5)
김두관	53(3.7)	41(3.8)	17(20)	111(4.3)
합계	1445(100)	1072(100)	85(100)	2602(100)

<표 23-2> 후보자별 주장에 대한 유권자 세부 반응

단위: 건(%)

유권자 반응		발언 후보(주장)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합계
긍정	동조	364(61.3)	350(70.6)	213(79.5)	8(23.5)	41(77.4)	976(67.5)
	인정	82(13.8)	30(6)	15(5.6)	10(29.4)	2(3.8)	139(9.6)
	권유	122(20.5)	105(21.2)	36(13.4)	14(41.2)	8(15.1)	285(19.7)
	지원	26(4.4)	11(2.2)	4(1.5)	2(5.9)	2(3.8)	45(3.1)
	합계	594(100)	496(100)	268(100)	34(100)	53(100)	1445(100)
부정	반박	60(13.9)	40(8.5)	10(16.7)	10(15.2)	11(26.8)	131(12.2)
	교정	4(0.9)	10(2.1)	4(6.7)	4(6.7)	2(4.9)	24(2.2)
	책망	46(10.6)	11(2.3)	3(5)	4(6.7)	4(9.8)	68(6.3)
	맞비난	322(74.5)	412(87.1)	43(71.7)	48(72.7)	24(58.5)	849(79.2)
	합계	432(100)	473(100)	60(100)	66(100)	41(100)	1072(100)
중립	유예	16(94.1)	16(94.1)	16(94.1)	16(94.1)	16(94.1)	80(94.1)
	요약	1(5.9)	1(5.9)	1(5.9)	1(5.9)	1(5.9)	5(5.9)
	합계	17(100)	17(100)	17(100)	17(100)	17(100)	85(100)

토론회 중반까지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고 주장 중심의 토론을 이어나갔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는 반응들이 관찰되었다. 유권자들은 서로를 비방하는 대신, 후보자의 주장이나 토론 태도에 관심을 표현하며 토론회를 관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동조와 맞비난 반응이 많이 관측되었으나, 공방전 때보다는 유권자 세부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후보자 간 대립구도가 치열하지 않을 때, 유권자들의 반응도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중립적 반응은 후보들이 주장을 하는 시점에 관찰되었다. 중립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기보다는 토론회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채팅창의 주된 흐름 또한 특정 후보나 후보의 주장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중립적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의 경우 의견을 개진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표 24-1> 후보자별 공격에 대한 유권자 반응

단위: 건(%)

발언 후보 (공격)	유권자 반응			
	긍정	부정	중립	합계
이재명	230(22.5)	108(22.7)	0	338(22.5)
이낙연	220(21.5)	229(48.1)	0	449(30)
추미애	522(51)	81(17)	0	603(40.2)
박용진	51(5)	58(12.2)	0	109(7.3)
합계	1023(100)	476(100)	0	1499(100)

<표 24-2> 후보자별 공격에 대한 유권자 세부 반응

단위: 건(%)

유권자 반응		발언 후보(공격)				합계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긍정	동조	184(80)	149(67.7)	281(53.8)	26(51)	640(62.6)
	인정	46(20)	39(17.7)	209(40)	25(49)	319(31.2)
	권유	0	23(10.5)	32(6.1)	0	55(5.4)
	지원	0	9(4.1)	0	0	9(0.9)
	합계	230(100)	220(100)	522(100)	51(100)	1023(100)
부정	반박	21(19.4)	25(10.9)	1(1.2)	17(29.3)	64(13.4)
	교정	9(8.3)	3(1.3)	2(2.5)	0	14(2.9)
	책망	8(7.4)	2(0.9)	7(8.6)	0	17(3.6)
	맞비난	70(64.8)	199(86.9)	71(87.7)	41(70.7)	381(80)
	합계	108(100)	229(100)	81(100)	58(100)	476(100)
중립	유예	0	0	0	0	0
	요약	0	0	0	0	0
	합계	0	0	0	0	0

후보자들의 공격에 대한 반응 1499건 중에서는 긍정 1023건(68.2%), 부정 476건(31.8%)으로 조사되었다. 후보자들이 공격 전략을 사용할 때 유권자들 사이에서 중립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추미애 후보의 공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전체 1023건 중에서 522건(51%)에 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115건의 공격 발언 중 40%에 해당하는 46건의 발언이 비난이었고, 그 중 22건이 추미애 후보의 발언이었음을 생각하면, 추미애 후보는 비난 중심의 공격을 사용했어도 유권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얻은 셈이다.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230건, 22.4%)와 이낙연 후보(220건, 21.5%)의 공격 발언에는 비슷한 수준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검증공세를 네거티브라고 규정한 이후, 이낙연 후보의 공격 발언에 대한 부정적 반응(229건, 48.1%)이 증가하였다.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의 공격 발언에는 각각 108건(22.7%), 81건(17%)의 부정적 반응만 나타났다.

주도권 토론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이낙연 후보를 비난하였고, 이재명·추미애 후보의 공격에 이낙연 후보가 수세에 몰리는 듯한 구도가 관찰되면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이재명·추미애 후보를 응원하는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실시간 채팅 흐름을 점유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표 25-1> 후보자별 방어에 대한 유권자 반응

단위: 건(%)

발언 후보 (방어)	유권자 반응			
	긍정	부정	중립	합계
이재명	105(54.4)	283(47)	0	388(48.8)
이낙연	88(45.6)	319(53)	0	407(51.2)
합계	193(100)	602(100)	0	795(100)

<표 25-2> 후보자별 방어에 대한 유권자 세부 반응

단위: 건(%)

유권자 반응		발언 후보(방어)		합계
		이재명	이낙연	
긍정	동조	104(99)	88(100)	192(99.5)
	인정	1(1)	0	1(0.5)
	권유	0	0	0
	지원	0	0	0
	합계	105(100)	88(100)	193(100)
부정	반박	19(6.7)	49(15.4)	68(11.3)
	교정	15(5.3)	0	15(2.5)
	책망	0	0	0
	맞비난	249(88)	270(84.6)	519(86.2)
	합계	283(100)	319(100)	602(100)
중립	유예	0	0	0
	요약	0	0	0
	합계	0	0	0

후보자들의 방어에 대한 반응 795건 중에서는 긍정이 193건(24.3%), 부정이 602건(75.7%)으로 나타났다. 공격과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이 방어 전략을 사용할 때 유권자들 사이에서 중립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만 방어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고, 유권자들도 주로 두 후보의 발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대장동 공방이 이어지던 시기의 토론회여서 지지

자들은 두 후보가 본격적으로 공방전을 벌이는 시간을 토론회의 주요 이벤트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동조와 맞비난 중심으로 양분되었다. 방어 발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이재명 후보 283건(47%), 이낙연 후보 319건(53%)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토론회 후반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채팅을 점유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방어 발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증가하였다.

<연구가설 2-3>은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방어전략 중 인정, 전이, 회피·전가, 최소화보다 부정, 폐기. 차별화에 긍정적 반응을 더 나타낼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방어전략은 유력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각 후보자가 주로 사용한 세부 전략도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모두 부정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해 유권자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집중적으로 받았지만 이낙연 후보의 발언에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후보자 발언의 유형을 기준으로 호·불호를 나타내기보다는 후보에 대한 기존 태도를 견지하면서, 발언의 내용이 적절한지, 토론회의 흐름이 어떤 후보에게 유·불리하게 흘러가는지 관찰하며 감정반응을 게시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26> 후보자별 방어 세부전략에 대한 유권자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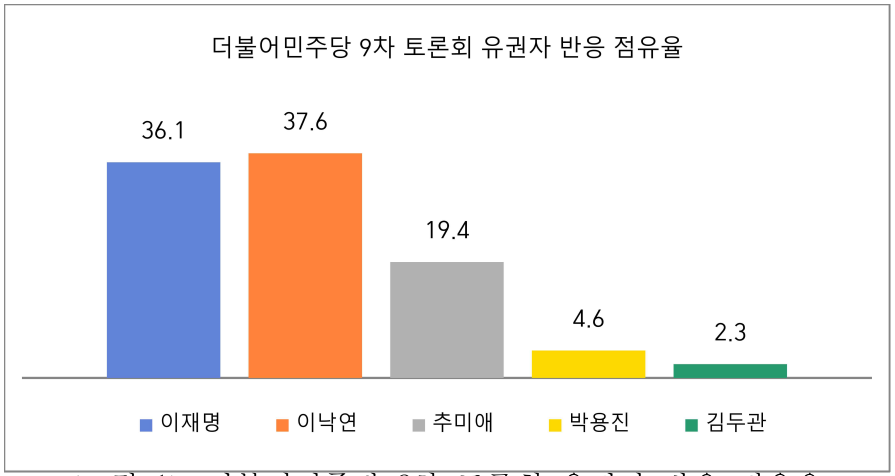
단위: 건

발언후보 (방어)	세부전략 (방어)	사용횟수	유권자 반응			
			긍정	부정	중립	합계
이재명	부정	3	0	187	0	187
	회피	8	8	73	0	81
	폐기	9	97	23	0	120
	합계	20	105	283	0	388
이낙연	부정	11	45	96	0	141
	전이	7	0	163	0	163
	인정	1	14	5	0	19
	차별화	4	29	55	0	84
	합계	22	88	319	0	407

<표 27> 후보자 발언에 대한 유권자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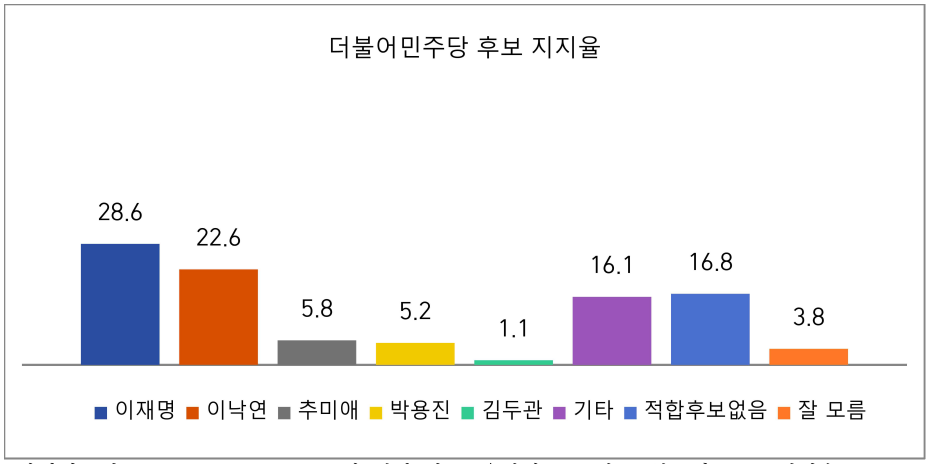
단위: 건(%)

유권자 반응	발언 후보																				합계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주장	공격	방어	소계	주장	공격	방어	소계	주장	공격	방어	소계	주장	공격	방어	소계	주장	공격	방어	소계	
긍정	594 (57)	230 (68)	105 (27.1)	929 (52.5)	496 (50.3)	220 (49)	88 (21.6)	804 (43.6)	268 (77.7)	522 (86.6)	0	790 (83.3)	34 (29.1)	51 (46.8)	0	85 (37.6)	53 (47.7)	0	0	53 (47.7)	2661 (54.4)
부정	432 (41.4)	108 (32)	283 (72.9)	823 (46.5)	473 (48)	229 (51)	319 (78.4)	1021 (55.4)	60 (17.4)	81 (13.4)	0	141 (14.9)	66 (56.4)	58 (53.2)	0	124 (54.9)	41 (36.9)	0	0	41 (36.9)	2150 (43.9)
중립	17 (1.6)	0	0	17 (1)	17 (1.7)	0	0	17 (0.9)	17 (4.9)	0	0	17 (1.8)	17 (14.5)	0	0	17 (7.5)	17 (15.3)	0	0	17 (15.3)	85 (1.7)
합계	1043 (100)	338 (100)	388 (100)	1769 (100)	986 (100)	449 (100)	407 (100)	1842 (100)	345 (100)	603 (100)	0	948 (100)	117 (100)	109 (100)	0	226 (100)	111 (100)	0	0	111 (100)	4896 (100)



<그림 1> 더불어민주당 9차 토론회 유권자 반응 점유율

<그림 2>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21.9.17.~9.18. 조사 결과 참고, 응답자 10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은 4896건의 반응 중 이재명 후보와 관련하여 1769건(36.1%), 이낙연 후보 1842건(37.6%), 추미애 후보 948건(19.4%), 박용진 후보 226건(4.6%), 김두관 후보 111건(2.3%)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그림 2>의 한국사회연구소(KSOI)가 주관한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이다. 실시간 채팅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알바'의 수가 많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반응 점유율로 미루어 보면 이날 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은 대체로 후보 지지율에 비례하여 후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토론회 개최 당시 지지율이 높았던 후보를 중심으로 반응이 집중되는 가운데, 토론회 후반 이재명·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낙연 후보의 공격·방어 발언에 비난 반응을 보이면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반응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2) 국민의힘

유권자들은 총 7307건 중 주장에 5409건(74%), 공격에 1348건(18.4%), 방어에 550건(7.5%)의 반응을 보였다. 전체 5639건의 긍정적 반응 중에서는 주장 4335건(76.9%), 공격 918건(16.8%), 방어 386건(6.8%) 순서로 집계되었다. 후보자들이 방어 발언을 가장 적게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유권자들도 방어에 대해 가장 적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셈이다.

<표 28> 설득전략에 따른 유권자 반응(국민의힘)

단위: 건(%)

설득 전략	유권자 반응			
	긍정	부정	중립	합계
주장	4335(76.9)	964(61.9)	110(100)	5409(74)
공격	918(16.3)	430(27.6)	0	1348(18.4)
방어	386(6.8)	164(10.5)	0	550(7.5)
합계	5639(100)	1558(100)	110(100)	7307(100)

χ^2=183.068(p<.001), df=4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방어 전략에도 부정적 반응을 가장 적게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9차 토론회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이낙연 후보를 집중 공격하면서 이재명·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결집하였다. 이낙연 후보의 방어 발언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증가하면서 방어에 대한 부정적 반응(602건, 28%)이 공격에 대한 부정적 반응(476건, 22.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는 윤석열·홍준표·유승민 후보가 모두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처럼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대신 공방전을 펼치는 후보가 없었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방어 발언을 할 때는 실시간 채팅창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산발적으로 응원이나 격려, 비난 반응을 게시하였다. 이

날 윤석열·홍준표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더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세를 이루어 실시간 채팅창을 점유하는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유승민 후보를 함께 응원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유승민 후보를 응원하는 흐름은 관측되지 않았다. 반면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홍준표 후보를 향해 각각 공격 발언을 할 때는 유승민 후보에게 부정적 반응이 집중되었다.

당시 윤석열·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여 누가 최종 후보로 선출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또한 여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큰 목표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토론회를 시청하는 유권자들은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순위후보가 유력후보를 공격할 때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유력후보가 서로 공방전을 벌일 때는 확실하게 승부가 날 때까지 관망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여겨진다.

<표 29-1> 후보자별 주장에 대한 유권자 반응

단위: 건(%)

발언 후보 (주장)	유권자 반응			
	긍정	부정	중립	합계
윤석열	1227(28.3)	471(48.9)	22(20)	1720(31.8)
홍준표	1328(30.6)	39(4.0)	22(20)	1389(25.7)
유승민	715(16.5)	90(9.3)	22(20)	827(15.3)
원희룡	71(1.6)	130(13.5)	22(20)	223(4.1)
황교안	994(22.9)	234(24.3)	22(20)	1250(23.1)
합계	4335(100)	964(100)	110(100)	5409(100)

유권자들은 각자 지지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응원전 형태의 반응을 보였다. 후보자가 주장 전략을 사용하며 발언할 때는 유권자들도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비난 발언보다는 후보의 주장이나 토론 태도에 주목하며

반응을 나타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이날 토론회에서 준비한 원고를 보며 발표하는 모습이 자주 관측되어 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다수 관찰되었다. 황교안 후보는 4.15 총선 사전투표 의혹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대선 현안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정적 반응이 증가하였다. 원희룡 후보도 황교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장 중심의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표 29-2> 후보자별 주장에 대한 유권자 세부 반응

단위: 건(%)

유권자 반응		발언 후보(주장)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합계
긍정	동조	1134(92.4)	1214(91.4)	612(85.6)	54(76.1)	975(98.1)	3989(92)
	인정	51(4.2)	81(6.1)	71(9.9)	17(23.9)	0	220(5.1)
	권유	21(1.7)	21(1.6)	31(4.3)	0	0	73(1.7)
	지원	21(1.7)	12(0.9)	1(0.1)	0	19(1.9)	53(1.2)
	합계	1227(100)	1328(100)	715(100)	71(100)	994(100)	4335(100)
부정	반박	5(1.1)	2(5.1)	3(3.3)	13(10)	15(6.4)	38(3.9)
	교정	49(10.4)	2(5.1)	2(2.2)	4(3.1)	27(11.5)	84(8.7)
	책망	26(5.5)	4(10.3)	4(4.4)	31(23.8)	28(12)	93(9.6)
	맞비난	391(83)	31(79.5)	81(90)	82(63.1)	164(70.1)	749(77.7)
	합계	471(100)	39(100)	90(100)	130(100)	234(100)	964(100)
중립	유예	20(91.9)	20(91.9)	20(91.9)	20(91.9)	20(91.9)	100(91.9)
	요약	2(9.1)	2(9.1)	2(9.1)	2(9.1)	2(9.1)	10(9.1)
	합계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110(100)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은 대체로 후보자의 주장에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유권자들의 세부 반응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가운데, 후보자의 발언 내용

이나 토론 태도를 화두로 권유·지원·교정·책망의 반응을 보였다.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를 칭찬하거나, 선의의 경쟁을 요청하거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상호비난은 자제할 것을 부탁하는 등의 중립적 반응도 후보자들이 주장을 하는 시점에 관측되었다.

유권자들은 윤석열·홍준표·유승민 후보의 공격 발언에만 반응을 나타냈다. 유력후보와 비유력후보 사이에 지지율 차이가 크기도 했지만, 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사실상 주장에 가까운 형식적인 공격을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30-1> 후보자별 공격에 대한 유권자 반응

단위: 건(%)

발언 후보 (공격)	유권자 반응			
	긍정	부정	중립	합계
윤석열	120(13.1)	106(24.7)	0	226(16.8)
홍준표	603(65.7)	34(7.9)	0	637(47.3)
유승민	195(21.2)	290(67.4)	0	485(36)
합계	918(100)	430(100)	0	1348(100)

<표 30-2> 후보자별 공격에 대한 유권자 세부 반응

단위: 건(%)

유권자 반응		발언 후보(공격)			합계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긍정	동조	120(100)	562(93.2)	132(67.7)	814(88.7)
	인정	0	41(6.8)	47(24.1)	88(9.6)
	권유	0	0	0	0
	지원	0	0	16(8.2)	16(1.7)
	합계	120(100)	603(100)	195(100)	918(100)
부정	반박	0	0	1(0.8)	1(0.2)
	교정	92(86.8)	15(44.1)	7(2.4)	114(26.5)
	책망	1(0.9)	0	7(2.4)	8(1.9)
	맞비난	13(12.3)	19(55.9)	275(94.8)	307(71.4)
	합계	106(100)	34(100)	290(100)	430(100)
중립	유예	0	0	0	0
	요약	0	0	0	0
	합계	0	0	0	0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안보를 주제로 한 두 차례의 주도권 토론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 긍정적인 반응이 집중되었다.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홍준표 후보를 대상으로 공격 전략을 사용할 때, 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지만, 토론회에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윤석열 후보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기보다는 홍준표·유승민 후보의 공격을 방어하는 정도에서 공격을 사용하였다.

윤석열 후보의 공격에 대한 부정적 반응 중에서는 토론 태도를 지적하는 교정(106회 중 92회, 86.8%)이 많이 나타났다. 홍준표·유승민 후보와의 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바라보지 않고 준비한 원고를 읽는 모습을 지적하는 유권자들이 다수 있었다. 후보자들이 공격 발언을 하는 동안 유권자들 사이에서 중립적 반응은 관측되지 않았으며, 세부 반응 유형도 동조와 맞비난 중심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각 후보자의 방어 발언에서도 유권자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가운데, 공격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의 토론 태도를 지적하는 반응이 홍준표·유승민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었다. 이때는 교정보다는 맞비난 반응이 많았는데, 안보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잘 모르겠다,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했던 시점에서 해당 반응이 집중되었다.

<표 31-1> 후보자별 방어에 대한 유권자 반응

단위: 건(%)

발언후보 (방어)	유권자 반응			
	긍정	부정	중립	합계
윤석열	165(42.7)	117(71.3)	0	282(51.3)
홍준표	180(46.6)	38(23.2)	0	218(39.6)
유승민	41(10.6)	9(5.5)	0	50(9.1)
합계	386(100)	164(100)	0	550(100)

<표 31-2> 후보자별 방어에 대한 유권자 세부 반응

단위: 건(%)

유권자 반응		발언 후보(방어)			합계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긍정	동조	163(98.8)	159(88.3)	24(58.5)	346(89.6)
	인정	1(0.6)	0	8(19.5)	9(2.3)
	권유	0	0	0	0
	지원	1(0.6)	21(11.7)	9(22)	31(8)
	합계	165(100)	180(100)	41(100)	386(100)
부정	반박	2(1.7)	0	0	2(1.2)
	교정	2(1.7)	0	0	2(1.2)
	책망	7(6)	0	0	7(4.3)
	맞비난	106(90.6)	38(100)	9(100)	153(93.3)
	합계	117(100)	38(100)	9(100)	164(100)
중립	유예	0	0	0	0
	요약	0	0	0	0
	합계	0	0	0	0

유권자들은 홍준표·유승민 후보의 방어 발언에 부정적 반응을 적게 나타냈는데, 두 후보 모두 이날 토론회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경쟁구도에 있는 후보와의 주도권 토론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답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30초 추가발언 기회를 사용하거나 사회자에게 발언 시간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가설 2-3>은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방어전략 중 인정, 전이, 회피·전가, 최소화보다 부정, 폐기. 차별화에 긍정적 반응을 더 나타낼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방어전략은 유력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각 후보자가 주로 사용한 세부 전략도 차이를 보인다.

유권자들은 후보자 발언의 유형을 기준으로 호·불호를 나타내기보다는 후보에 대한 기존 태도를 견지하면서, 발언의 내용이 적절한지, 토론회의 흐름이 어떤 후보에게 유·불리하게 흘러가는지 관찰하며 감정반응을 보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32> 후보자별 방어 세부전략에 대한 유권자 반응

단위: 건

발언후보 (방어)	세부전략 (방어)	사용횟수	유권자 반응			
			긍정	부정	중립	합계
윤석열	부정	9	110	36	0	146
	폐기	3	0	51	0	51
	최소화	4	33	12	0	45
	차별화	5	22	18	0	40
	합계	21	165	117	0	282
홍준표	부정	6	139	0	0	139
	전이	2	41	21	0	62
	인정	2	0	0	0	0
	최소화	4	0	17	0	17
	합계	14	180	38	0	218
유승민	부정	3	41	9	0	50
	합계	3	41	9	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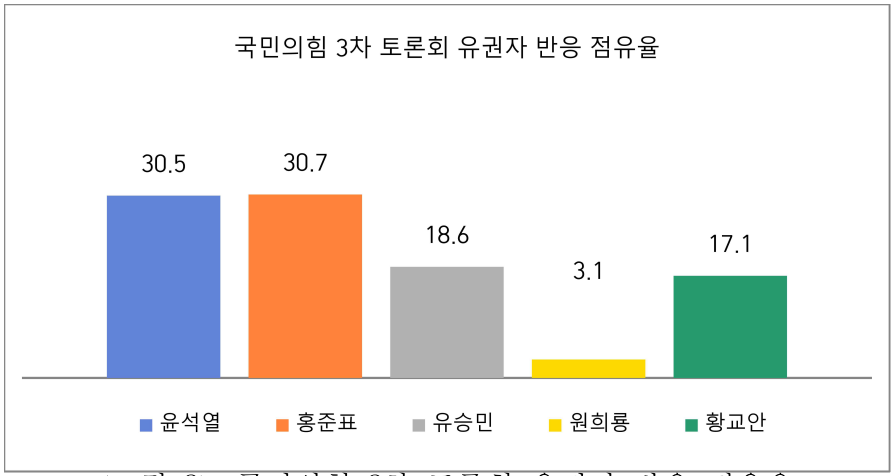
<연구문제 3>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정당의 후보자가 사용하는 설득전략과 유권자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양 정당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 가운데, 방어 전략의 사용과 유권자 반응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 후보가 모두 부정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세 후보 모두 유권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받았다.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부정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반응이 더 많이 관측되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하여 폐기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양형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폐기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부정적 반응이 주로 관측되었다. 이낙연 후보가 전이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유권자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홍준표 후보가 해당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이 좀 더 많이 관찰되었다. 같은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후보자에 따라 유권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후보자의 토론 태도나 토론회의 흐름이 유권자의 반응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3> 후보자 발언에 대한 유권자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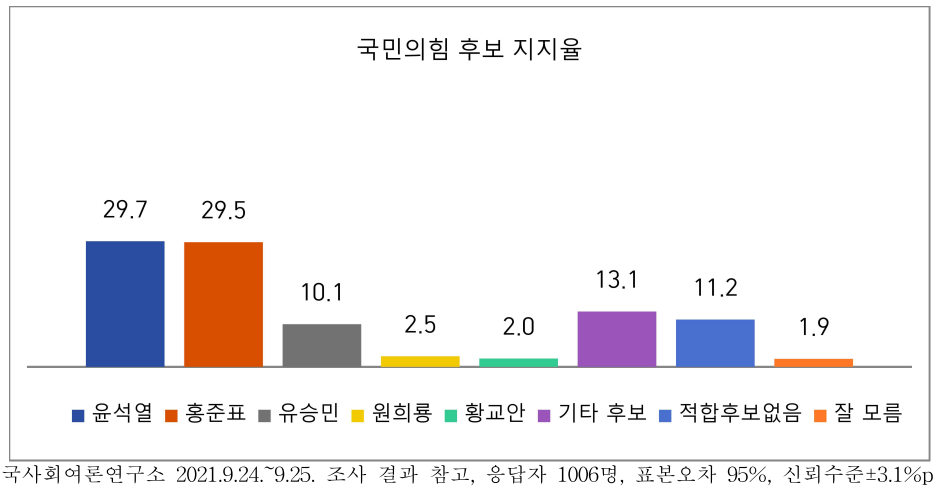
단위: 건(%)

유권자 반응	발언 후보																				합계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주장	공격	방어	소계	주장	공격	방어	소계	주장	공격	방어	소계	주장	공격	방어	소계	주장	공격	방어	소계	
긍정	1227 (71.3)	120 (53.1)	165 (58.5)	1512 (67.9)	1328 (95.6)	603 (94.7)	180 (82.6)	2111 (94.9)	715 (86.5)	195 (40.2)	41 (82)	951 (69.8)	71 (31.8)	0	0	71 (31.8)	994 (79.5)	0	0	994 (79.5)	5639 (77.2)
부정	471 (27.4)	106 (46.9)	117 (41.5)	694 (31.1)	39 (2.8)	34 (5.3)	38 (17.4)	111 (4.9)	90 (10.9)	290 (59.8)	9 (18)	389 (28.6)	130 (58.3)	0	0	130 (58.3)	234 (18.7)	0	0	234 (18.7)	1558 (21.3)
중립	22 (1.3)	0	0	22 (1)	22 (1.6)	0	0	22 (1)	22 (2.7)	0	0	22 (1.6)	22 (9.9)	0	0	22 (9.9)	22 (1.8)	0	0	22 (1.8)	110 (1.5)
합계	1720 (100)	226 (100)	282 (100)	2228 (100)	1389 (100)	637 (100)	218 (100)	2244 (100)	827 (100)	485 (100)	50 (100)	1362 (100)	223 (100)	0	0	223 (100)	1250 (100)	0	0	1250 (100)	7307 (100)



<그림 3> 국민의힘 3차 토론회 유권자 반응 점유율

<그림 4>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21.9.24.~9.25. 조사 결과 참고, 응답자 100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유권자들은 7307건의 반응 중 윤석열 후보와 관련하여 2228건(30.5%), 홍준표 후보 2244건(30.7%), 유승민 후보 1362건(18.6%), 원희룡 후보 223건(3.1%), 황교안 후보 1250건(17.1%)의 반응을 나타냈다. 황교안 후보를 제외하면 <그림 4>의 한국사회연구소(KSOI)가 주관한 여론조사와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당시 윤석열·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무난하게 본경선에 진출할 것으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예비경선을 통과할 네 번째 후보는 누구일지 예측하는 반응을 실시간 채팅창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날 토론회 초반에는 윤석열·홍준표·황교안 후보에게 유권자 반응이 집중되어 일부 유권자들은 황교안 후보의 본경선 진출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가 유력후보자인 윤석열·홍준표 후보 모두에게 검증 공세를 펼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유율을 높였다. 반면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홍준표·유승민 후보의 주도권 토론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았고,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도 발언 시간의 대부분을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의혹을 제기하는데 할애하면서 토론 초반의 점유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

또한 황교안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지목한 다음, 상대 후보를 바라보지 않고 2분 정도의 시간을 원고만 보며 발언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황교안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는 매우 아쉬운 토론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발언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실시간 채팅창에서 '부정선거 얘기만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보여준 것이 없는데 왜 계속해서 황교안 후보를 응원하는 글이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다', '황교안 후보는 뉴스 진행하러 나왔나', '댓글 알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이 다수 관측되었다.

황교안 후보는 최재형·안상수 후보를 지목한 다음 자신의 주장만 이야기하거나, 유력후보들에게도 공격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권유 형태의 주장을 사용하였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막기 위해 이재명 방지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며 홍준표·유승민 후보의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이에 두 후보는 모두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검실시는 당시 국민의힘 정당 차원의 주장이기도 했는데, 이때 유권자들 사이에서 홍준표·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반응이 다수 관찰되었다. 황교안 후보는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윤석열 후보에게도 질문하였지만 토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청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유력후보자와의 토론시간이 짧았고, 발언시간을 공격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데 주로 활용하는 등, 황교안 후보는 지지율이 낮았던 후보들과 유사한 토론 태도를 보였다. 공격을 자제함으로써 유권자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컷오프 통과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한 것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3. 토론회 특징과 주요 흐름

1) 더불어민주당

<연구가설 2-4>는 후보자의 토론이 주장 및 비평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실시간 채팅에서도 유권자 사이에서 토론이 관찰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유권자들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반응들이 있었지만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유권자들은 토론회 시청에 집중하며 응원전 형태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9차 토론회는 1시간 30분 동안 기조발언(10분)-공약 발표(30분)-후보들의 20대 시절(10분)-주도권 토론(35분)-마무리 발언(5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공약 발표에서 각 후보에게는 6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후보들은 2분 동안 준비한 공약을 발표하고, 4분 동안 상대 후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문시간은 30초, 답변시간은 1분이었다. 사회자는 후보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나 비방은 하지 말도록 당부하였고, 후보들도 대부분 연설회와 대담에 가까운 토론을 이어갔다.

유권자들은 동조나 맞비난 중심의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다. 지지율에 따라 5인의 후보 중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 대한 댓글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연합구도를 형성한 추미애 후보도 종종 언급되었다. 박용진 후보에게는 앞으로의 전망을 응원하는 반응들이 관찰되었고 김두관 후보에게는 지역균형발전 주장에 지지하는 의견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박용진·김두관 두 후보를 대상으로 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 화천대유는 누구의 소유인지 묻는 유권자의 채팅에 다른 유권자가 화천대유는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낙연 후보는 네거티브를 그만두라는 유권자의 주장에 대해 이낙연 후보의 품격있는 태도를 칭찬하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응원 채팅을 남기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응원 채팅을 남기는 흐름도 관찰되었다.

주도권 토론은 7분간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하는 규칙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시간은 1분, 답변시간은 최소 30초에서 1분이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이 1분이 넘어갈 경우, 답변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토론과 관련하여 후보에게 주어진 공약발표와 질문답변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관찰되었다. 질문시간은 최소 1분, 답변시간은 2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연대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후보들의 경우, 유권자들이 둘 이상의 후보를 함께 응원하는 모습도 자주 관찰되었다. 드물지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를 모두 칭찬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반응도 있었고, '국민의힘 토론회보다 지루하다'는 유권자의 의견에 대응하여 '정책경쟁처럼 보여서 더불어민주당 토론회가 더 발전적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관찰되었다. 화천대유는 누구의 소유인지 반복해서 채팅을 게시하는 유권자에게 다른 유권자가 화천대유는 본인의 소유라거나 국민의힘 문제라고 지적하는 반응도 종종 관찰되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은 후보자와 지지자가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인지 실시간 채팅에서도 동조나 맞비난 유형의 반응이 중심을 이루었다. 한 유권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총 배점 1000점 중 390점에 해당하는 절대평가 항목을 도시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닌 공사 단독으로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낙연 후보의 공약이나 총리로서 안정적인 국정 수행 능력을 칭찬하는 반응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낙연 후보의 입장을 비난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후보의 전남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이 낮았음을 비판하는 반응도 있었다. 이낙연 후보의 탄소중립에 대한 후보 주장에 대해 '태양광·풍력 발전으로는 한계가 있고 소형원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추미애 후보를 대상으로 당 대표시절에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질타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수준을 비방하는 유형의 책망 반응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비록 서로 다른 후보를 응원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짐작된다.

토론회 시작 후 48분경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었다.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이슈 관련하여 발언을 시작하였다. 박용진 후보가 상당히 신중한 태도로 질문(권유, 비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채팅에서 박용진 후보에 대한 맞비난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한 동조 반응이 다수 관측되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한동안 격한 반응이 나오자 중재를 시도하거나 원팀을 강조하는 반응들도 관측되었다.

박용진 후보는 이어서 이낙연 후보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의 아쉬움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을 하였다. 이때 이낙연 후보가 후보들 중 처음으로 인정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낙연 후보는 '당시 선거 패배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발언(인정)과 함께, '다시 한번 쇄신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는 주장(권유)을 함께 제시하였다.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6분, 이낙연 후보와 1분간 주도권 토론을 하였다.

이어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장동 이슈와 관련하여 공격 발언을 하였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9월 18일)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인 것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비판)을 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공격에 방어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낙연 후보의 공격에 자신은 공익 환수에 기여하였다는 성과를 강조하며 대응(자랑, 칭찬)하였다. 그는 화천대유 사건은 토건 세력의 책임이라는 주장과 함께(전가, 권유), 자신은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 노력한 것이며(자랑, 칭찬), 정책 추진 당시에는 개발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폐기) 개발 이익이 급등한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때 유권자들은 이낙연 후보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이낙연 후보에게 네거티브를 또 사용한다거나, 후보자가 전남도지사로서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 비난하는 반응이 관측되었다.

이어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회사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전직 시장으로서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다 공언하고도 정작 자료제출에는 소극적'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였다. 이때 이재명 후보는, 해당 사업은 성남시가 한 것이고(회피·전가), 자신은 이제 성남시장이 아니며(폐기), 경기도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폐기)고 이야기하였다.

해당 발언을 들은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였으나,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는데 경기도에 자료가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을 제시하였다. 자료 제출을 왜 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 유권자는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이었어도, 개발 후에 이익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급조한 직원 몇 명이 전부였던 화천대유 회사가 선정된 것부터가 비리 개연성이 높다(반박)'며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설마 몰랐다 하더라도 최종 승인권자로서 책임이 있다(반박)'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낙연 후보는 주도권 토론 중 남은 1분의 발언시간을 박용진 후보에게 사용하며 자신만이 대장동 의혹을 염려하는 것이 아님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추미애 후보는 지명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먼저 지목하였다.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개발이익 환수 업적을 칭찬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와의 주도권 토론에서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주었다. 또한 대장동 의혹은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덮으려는 야당의 선거전략이며 여기에 유권자와 후보가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어 추미애 후보는 불로소득을 챙긴 것은 화천대유의 고문변호인으로 있는 박근혜 정부 시절 법조인과 전·현직 야당 인사들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계속해서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저희처럼 함께 개혁을 주장하며 정책 중심으로 네거티브 없이 토론을 하니 좋지 않으냐(권유)'는 발언을 하였다.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나 유권자를 대신하여 '이낙연 후보의 발언은 네거티브 공세'라는 프레임을 씌워준 셈인데, 이때부터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거나 두 후보의 연대를 응원하는 유권자들이 채팅창을 점유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낙연 후보를 응원하거나 이재명·추미애 후보를 비난하는 채팅도 산발적으로 등장했으나 군집을 형성하지 못했다.

추미애 후보는 이어 이낙연 후보를 지목하며 '왜 야당인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발언을 하느냐'며 공격(비판, 비난)을 집중하였는데, 이낙연 후보는 추미애 후보의 공격에, '국민이 걱정하고 분노하고 계십니다(전이)', '일부 언론이 아니라 다수의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일입니다(차별화)', '네거티브가 아닙니다(부정)' 라고 방어를 사용하였다. 이때는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채팅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가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냐'며 이낙연 후보를 비난하는 채팅 흐름이 관찰되었다.

추미애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토론은 약 4분간 지속되었다. 주도권 토론은 질문자의 발언시간이 1분, 답변자의 발언시간은 최소 30초에서 최대 1분이었고, 질문자가 답변자의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공격 입장에 있는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었다.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답변시간을 많이 허용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갔는데, 이에 따라 이낙연 후보가 시간관계상 답변을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관찰되었다.

따라서 토론을 시청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몰아세우는 양상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있다. 발언시간이 추미애 후보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상황이어서 이낙연 후보가 수세에 몰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사회자가 추미애 후보에게 답변시간은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제지하였으나, 추미애 후보의 주도권 토론시간이 이미 끝난 시점이어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사회자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부 유권자들은 사회자에게 말을 끊지 말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하였다.

추미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후에는 김두관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이어졌는데, 주어진 7분 중 5분 가까이 박용진 후보와 사실상 정책발표에

가까운 발언을 나누었다. 김두관 후보의 토론 시간 동안 유권자들은 추미애 후보를 응원하거나 칭찬하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주로 남겼다. 결국 추미애 후보가 주도권 토론 35분의 시간 중 40%에 해당하는 14분의 시간을 자신과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가져온 셈인데, 사실상 이날 토론회의 승부는 여기에서 갈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6분)와 추미애 후보(1분)에게 주도권 토론을 사용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주도권 토론 초반 자신에게 주어진 1분의 질문시간을 대부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이때 사회자가 발언을 마무리하고 10초 이내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제지하기도 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자신의 업적이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며 주장(권유)하였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부정)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왜 토건세력의 부당이득을 막지 못했는지를 질타하는 것(차별화)'이라며 방어전략을 사용하여 답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낙연 후보의 해당 발언을 근거로,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를 무리하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도 이낙연 후보는 30초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평균 답변시간 약 20초).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중에 이재명 후보가 추가 발언을 하려고 하자, 사회자가 답변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제지하였다. 이때 자신의 답변시간이 다 된 것으로 판단한 이낙연 후보가 발언을 멈추었다. 이재명 후보는 바로 발언을 이어나갔는데 사회자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사회자의 역할을 질타하는 반응이 관찰되었다. 이재명 후보의 전체 공격 전략 중 대부분이 이 시간에 집중되었는데, 이에 대응하여 이낙연 후보가 방어에 해당하는 전략을 자주 사용하면서 유권자들에게는 이낙연 후보가 검증받는 듯한 양상으로 보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대체로 마무리 발언에서는 유권자들에게 다른 후보자와 구별되는 자신의 장점을 칭찬이나 자랑, 권유를 통해 제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추미애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비난과 권유를, 이낙연 후보는 방어를 사용하였다. 추미애 후보는 자신이 경선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확실하게 표를 몰아주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낙연 후보는 충분하지 못했던 답변시간을 마무리발언 시간을 통해 보충하면서, 네거티브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민의힘

국민의힘 3차 토론회에서도 유권자들 사이에 토론 흐름은 관찰되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토론회 시청에 집중하며 응원전 형태로 반응을 나타내는 대신, 상호 비방이나 흑색선전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3차 토론회는 1시간 50분 동안 모두발언(5분)-주도권 토론 1(50분)-주도권토론 2(50분)-마무리발언(5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와 달리 공약 발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모든 후보가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유승민·원희룡 후보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때 일부 유권자들은 두 후보에게 '내부 총질'이라는 비난을 하기도 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특검을 구성하여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함께 거론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도덕성의 흠결이 없는 본인이 대선후보가 되어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주도권 토론은 모든 후보가 4분 동안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과 답변시간은 모두 1분이었다.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이 길어져 시간이 초과될 경우, 답변자에게 직권으로 20초 답변시간을 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토론과 관련하여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중심으로 4인 토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토론회가 중반까지 주장 중심의 정책발표로 진행된 것과 달리, 국민의힘 토론회는 주도권 토론으로만 구성되어 초반부터 후보자 간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유승민 후보가 먼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다른 후보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였고, 윤석열 후보는 공약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자체 조사를 통해서 마련한 공약이라며 반박하였다. 유승민 후보는 이어 홍준표 후보에게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은 안티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휴머니스트라고 방어하며 부정과 차별화를 사용하였다.

원희룡 후보는 권유를 많이 사용하며 윤석열, 유승민 후보에게 질문하였는데, 발언시간이 1분이 넘어 사회자의 제지를 받았다. 원희룡 후보의 주장이 길어지자 유권자들 사이에서 질문은 언제 하느냐는 부정적 반응이 관측되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주장 중심으로 활용한 부분은 비유력후보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력후보자를 공격할 경우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공격보다는 주장에 집중하며 상황을 살핀 것으로 짐작된다.

황교안 후보는 성남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건 개요를 설명하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였다. 황교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 중반까지 유권자들로부터 윤석열·홍준표 후보와 대등한 수준의 응원(약 600건, 토론회 중반 기준 전체 30%)을 받았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와 마찬가지로 발언시간을 주장에 할애하면서 토론회 후반부로 갈수록 긍정적 반응이 줄어들고 부정적 반응이 증가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유승민 후보의 입장이 이전과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도권 토론을 시작했다. 유승민 후보가 원고를 거의 보지 않고 윤석열 후보에게 시선을 두었던 반면, 윤석열 후보는 주로 원고를 많이 보며 발언하였다. 또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원희룡·황교안 후보처럼 주장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질문은 짧게 마무리하였는데, 이때 윤석열 후보의 소극적인 토론 태도를 지적하는 반응이 다수 관측되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작계 5015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질문하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작계 5015 상황이 된다면,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여 대응상황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작계 5015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작계 5015 상황이 되면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유권자들도 윤석열 후보의 준비 부족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홍준표 후보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홍준표 후보의 안보 전문성을 인정하는 반응을 주로 나타냈다. 만약 홍준표 후보나 다른 후보자가 좀 더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를 몰아붙이는 발언을 했다면, 유권자들의 채팅 양상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처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실시간 채팅창을 점유하는 상황이 관측되었을 수 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검찰총장 재직 당시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느냐'며 공세를 이어나갔는데, 이때는 홍준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방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예전에 비해 권한이 많이 축소(차별화)되어 정보열람 권한이 없었다(폐기)'며 방어하였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을 구형하고도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번 경선에 출마한 것이 과연 일관성이 있는 행동인지 질문하였다. 이때 유권자들은 유승민 후보의 새누리당 탈당 및 바른미래당 창당 이력을 언급하며 비난 반응을 나타냈다. 윤석열 후보는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하였음을 강조(차별화)하며 방어하였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유승민 후보는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

으로는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가 '45년을 구형하고서 이제는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공격하자, 윤석열 후보는 '재판에서는 그렇게 결정된 것(전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최소화)'고 방어하였다.

유승민 후보는 발언 시간 5분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윤석열 후보에게 주로 사용하였다. 15초 남은 시점에서 유승민 후보는 30초 추가발언 기회를 사용하여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하였다. 그는 이전 회차의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자신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음을 비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과거 발언부터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홍준표 후보를 압박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춘향-향단' 발언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대신 전달했을 뿐(부정, 전이, 최소화)이라며 방어하였고, '허접하고 단순한 여자였다'는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부정, 최소화)고 방어하였다. 이때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영상으로 기록에 남아있다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비난하였는데, 홍준표 후보는 거짓말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유승민 후보에게 언성을 높였다. 유승민 후보는 계속해서 '후보님께서 관훈클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제 와서 부정하지 마라(비평, 비난)'며 맞섰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은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검증의 책임을 유승민 후보에게 돌렸다.

두 후보가 맞붙는 시점에 몇몇 유권자들은 유승민 후보에게 비난 발언을 하거나, 홍준표 후보의 고압적인 토론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지만, 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 격렬한 감정반응은 관측되지 않았다. 두 후보가 탄핵 관련하여 짧지만 매우 날선 공방을 벌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의외의 반응이라 할 수 있는데, 유권자들은 누가 공방전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판단을 유보하면서 토론을 지켜본 것으로 짐작된다.

이어서 하태경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었다. 하태경 후보는 윤석

열 후보에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시작하였다. 하태경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인 청년 주택 정책을 비판하였다. 무주택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은 34세 이하 청년은 사실상 가점을 얻기 힘들다며 정책에 청년이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하태경 후보의 공격에 '청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부정), 아직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공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명확히 정리해서 발표하겠다(최소화)'고 방어하였다. 하태경 후보는 '정리되지 않은 부족한 상태에서 공약을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비율은 정하지 않았지만(최소화), 청년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하태경 후보는 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임기 5년 내 역세권 주변 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개발 시행에 필요한 최소기간에 대해 질문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하태경 후보가 답변의 허점을 비판하였음에도 윤석열 후보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반응보다는 윤 후보를 두둔하거나 하태경 후보를 비난하는 반응이 관측되었다.

황교안 후보의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이 이어졌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가 이 시점까지 주장만 평균 70회의 발언을 했던 것에 비해 황교안 후보는 23회의 발언을 하였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였다. 황교안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2분 넘게 이어갔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반응이 관측되었다. 그는 4.15 총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경선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이어졌다. 윤석열 후보는 유승민 후보에게 질의를 시작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유승민 후보의 육아휴직 6년 보장 공약이 다소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전이)라도 육아휴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공무원이

아닌 중소기업 근무자들에게 육아휴직 3년은 자칫 경력단절을 가져올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재차 공격하였다. 유승민 후보는 '3년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최대 기간이며, 1년씩 3번에 나누어서 쓰면 현실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곧바로 '부모보험 가입제도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이용할 수 있겠느냐'며 질의를 이어갔다. 유승민 후보는 국가가 지원해서라도 당연히 부모보험 가입제도를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승민 후보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대한민국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공격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모습이 중계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유승민 후보의 준비성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반응이 관측되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하였다. 그는 '홍준표 후보는 2017년 대선 출마 당시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주장했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최저임금 권고제와 공공부문 인원감축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비평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홍준표 후보가 모병제를 주장하는 후보에게 젊은 층의 표를 얻으려는 수작이라고 비난했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꿔 모병제에 찬성하고 있다며 비평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 공격하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때 유권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후보를 칭찬하는 반응이 관측되었다. 홍준표 후보는 2017년 탄핵정국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당이 궤멸되기 직전의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당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했던 발언(전이)이라고 방어하였다. 또한 홍준표 후보는 당시 자신이 경황이 없어 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발언하였다. 그것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반성(인정)한 후에 입장을 바꿨다고 해명하였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2017년과 달리 상황이 바뀌었음(폐기)을 주장하며 전쟁양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방어하였다. 1차 주도권 토론에서 탄핵과 관련하여 유승민 후보와 날선 공방을 벌였던 것과는 달리, 홍준표 후보는 실질적 경쟁상대인 윤석열 후보와의 토론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인정 전략을 활용하였다. 두 후보의 토론이 격론 없이 무난하게 진

행되면서 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별다른 감정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의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홍준표 후보는 북한에서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가로 질문하였다. 이때 윤석열 후보는 북한에서 언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홍준표 후보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만만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격을 이어나갔는데, 윤석열 후보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굳이 하지 않겠다며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감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두 후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 이때 유권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는 반응이 다수 관측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은 '대통령으로서의 포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유승민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였다. 하태경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황교안 후보의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주장과 비난을 함께 사용하였다. 원희룡 후보는 부동산 비리를 척결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자신임을 주장하였다. 황교안 후보는 하태경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윤석열 후보는 진흙탕 싸움이 아닌(비난) 실사구시의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홍준표 후보는 공정한 정치를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대선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하는 설득전략과 이에 따른 유권자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 모두 주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기능이론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경쟁한다고 가정하였으나, 이번 선거는 양 정당 모두 사전에 후보자에게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성숙한 토론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상대 정당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대한 공격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유력후보자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상대 정당 후보에게 공격의 소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유력후보자들은 대부분 정책 주장이나 국정운영 비전, 대통령으로서의 포부를 주장하며 유권자들에게 상대 정당의 후보와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임을 설득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지지율이 높지 않은 비유력후보자들은 유력후보자에 대한 공격발언은 하지 않고, 상대 정당과 후보를 대상으로 비판과 비난을 하면서 유권자의 관심을 끌거나, 유력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공격 전략 중에서는 비평이 비난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유력후보에 대한 공격을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후보들은 가급적 공격 발언은 줄이고, 비평을 주로 사용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를 거두겠다고 선언한 이후, 대부분의 토론에서 비평 중심으로 공격하였음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고, 경선 기간 동안 지지율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회 일정이 끝나고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대신 자신이 ‘도덕적으

로 흠결이 없는 안전한 후보'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지지율 역전을 달성하진 못했으나 3차 투표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큰 표차로 승리했던 결과를 보면, 경선 내내 네거티브로 여겨졌던 이재명 후보 검증보다 이낙연 후보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포지티브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더 주효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국민의힘 윤석열·홍준표 후보는 토론회보다는 토론회 밖에서 상대에 대한 직설적인 발언을 하였다. 두 후보는 사전에 치열한 토론을 예고하면서도 실제 토론회에서는 상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며 유권자들에게 향후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는 자신임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유승민 후보만이 지지율이 높은 두 후보를 대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발언을 사용하였다. 그는 이번 경선에서 토론회에 강한 면모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았다.

박연진·김관규(2016)의 연구에서는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일수록 공격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력후보는 자신의 지지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격을 적게 사용하고, 차순위후보는 유력후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격을 더 사용하게 된다. 비유력후보자는 당선보다는 다음 선거를 위해 자신과 소속 정당을 알릴 목적으로 공격을 많이 사용한다.

양 정당의 이번 경선에서도 유력후보보다 차순위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며 선행연구와 비슷한 흐름이 관측되었으나, 비유력후보자는 공격을 거의 하지 않았다. 양 정당 모두 유력후보의 지지율을 적극 관리하는 분위기였고, 차순위후보의 공격발언에 유권자들이 화답하지 않으면서 비유력후보들도 소극적으로 토론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방어 전략은 유력후보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된 가운데, 각 후보자가 주로 사용한 세부전략의 차이는 있지만, 전략 선호도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

의 공격에 주장을 사용하여 답변함으로써 자신이 토론을 주도하고 있거나 최소한 밀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하였다. 후보자들은 상황에 따라 방어 전략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가능하면 주장을 사용하여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순위후보는 유력후보에게 공격을 집중하면서 유력후보의 공격에는 방어 발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장이나 공격을 사용하여 방어하는 모습이었다. 비유력후보는 유력후보와 차순위후보에게 공격을 받지 않아 방어 전략의 사용이 관측되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설득전략에 주장, 공격, 방어의 순서로 반응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들의 공방전이 벌어지는 시점에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토론이나 격렬한 감정반응이 관찰되며 공격이나 방어에 대한 반응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이번 토론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주장 중심의 발언을 많이 사용하면서 유권자들의 반응도 후보자가 많이 사용한 설득전략 빈도에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격보다는 주장과 방어에 부정적 반응을 더 많이 나타냈고,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는 후보자의 주장이 공격보다 많은 부정적 반응을 얻었다. 당시 양 당의 경선 상황이 네거티브를 매우 경계하여 검증도 쉽게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였음을 감안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가 공격이 아닌 주장을 사용하여 발언하더라도, 발언 내용·발언 상황·토론 태도를 화두로 부정적 반응을 게시하였다. 유권자들이 한번 정한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이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방어전략 중 인정, 전이, 회피·전가, 최소화보다 부정, 폐기, 차별화에 긍정적 반응을 더 나타낼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각 후보가 전략을 사용하였을 당시의 상황에 차이가 있어 유권자 반응에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가 사용하는 설득전략과 유권자 반응의 경우, 주장과 공격은 전체적으로 두 정당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 가운데, 방어에서만 전략의 사용과 유권자 반응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낙연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홍준표·유승민 후

가 부정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하여 부정 전략을 사용하였을 때는 유권자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공세 관련하여 해명하면서 부정 전략을 사용하였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이 함께 관찰되었다.

윤석열 후보가 공약 유사 의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정을 사용했을 때도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 홍준표 후보가 정책 및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변화를 변호하며 부정을 사용했을 때나, 유승민 후보가 21대 총선 당시 제3지대 창당 주장 여부에 대해 부정을 사용하였을 때도 유권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나타냈다.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하여 폐기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양형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폐기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부정적 반응이 주로 관측되었다.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공세 관련하여 전이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유권자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 변화를 변호하면서 전이를 사용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같은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후보자에 따라 유권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후보자의 토론 상황·토론 태도 등의 요인이 유권자의 반응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권자들은 의견지도자인 후보자에게 동조하며 후보자의 주장, 토론 태도, 언행을 재생산하는 형태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토론 초반에는 두 후보를 응원·비난하는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나다가,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시점부터 이낙연 후보의 공격·방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의견지도자인 후보자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추미애 후보의 공개적 의사표현으로 이재명 후보의 위계가 높아지면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의견표명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고 주장 중심의 토론을 이어나가는 동안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는 반응들이 관찰되었다. 유권자들은 서로를 비방하는 대신, 후보자의 주장이나 토론 태도에 관심을 표현하며 토론회를 관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발언과 행동에 높은 위계를 부여하며 의견지도자의 행동에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키려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는 윤석열·홍준표·유승민 후보가 모두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처럼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며 토론의 균형을 움직이는 후보가 없었다. 그렇지만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내릴 때는 유권자들도 해당 후보에 대한 직설적인 반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유승민 후보를 함께 응원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유승민 후보를 응원하는 흐름은 관측되지 않았다. 반면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홍준표 후보를 향해 각각 공격 발언을 할 때는 유승민 후보에게 부정적 반응이 집중되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 밖에서는 서로에 대한 날선 평가를 쏟아내기도 했지만, 토론회에서는 크게 언성을 높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직설적인 평가는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유승민 후보와의 토론에서는 때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의견지도자인 후보의 발언이나 토론 태도를 기준으로 의견표명 정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성 발언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고, 경쟁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정 수준의 갈등은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공방전을 벌이는 동안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감소하고 숙의성이 부족한 의견이 증가하며 동조나 맞비난 중심의 반응이 다수 관측되는 것으로 미루어, 성숙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후보자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시간 채팅에서 유권자들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반응들이 있었지만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유권자들은 토론회 시청에 집중하며 응원전 형태로 반응을 나타냈다. 유권자들이 실시간 채팅에 게시하는 반응의 수가 워낙 많고, 속도도 빠른데다, 다른 유권자의 반응보다는 토론회를 시청하며 후보자의 발언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은 다수의 유권자가 자유롭게 후보자와 토론 내용에 대한 반응을 게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시간으로 토론을 시청하는 유권자가 수 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실시간 채팅에 동시에 올라오는 수많은 반응들이 다자간 토론으로 발전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의 댓글에서는 이용자 간 대화의 흐름이 관찰되었다. 토론회 시청자들 중 일부가 토론회의 형식이나 내용, 후보자에게 바라는 의견을 주제로 댓글을 남겼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해당 댓글에 다른 이용자들이 다시 댓글을 남기며 짧지만 대화의 흐름들이 형성되었다. 보통 2명에서 5명의 이용자들이 소집단을 형성하여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남겼는데, 규모는 작지만 실시간 채팅보다 대화의 숙의성이나 문장의 완결성이 높은 대화가 많았다.

하지만 댓글도 가장 최근에 게시된 순서나 다른 이용자의 추천을 많이 받은 순서로 정렬되고, 한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는 댓글 수가 한정되는 형식적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작성자가 직접 삭제하지 않는 이상 기록이 페이지에 고정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댓글을 남기는 이용자 수는 많지 않고, 새로운 댓글이 올라오는 속도도 느린 편이다. 어느 정도 문해력이나 작문능력을 갖춘 일부 이용자들이 댓글을 남기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에 비하여 수준은 높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유권자 대화의 숙의성을 주제로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를 통제하거나, 실시간 채팅 대신 댓글을 분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선거방송토론은 연설이나 유세 등 다른 선거 캠페인과 구분된다. 후보자들은 수년간 형성해 온 긍정적인 이미지는 강화하고, 부정적 이미지는 탈피하려고 하며, 다수의 유권자와 친밀도를 형성하기 위해 적절한 화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후보와 경쟁하면서 전략적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대선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한 설득전략에 주목한 선행연구가 주로 후보자의 위상이나 토론형식에 따라 후보자의 설득전략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들의 설득전략에 유권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만약 실시간 채팅창에서 유권자들 사이에 토론 형태의 대화가 관찰된다면, 기존 연구에서 설문조사로 측정했던 정치대화를 보다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시간 채팅에서 유권자의 토론이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설문조사나 실험상황에서 관측하기 어려웠던 직접적인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가 토론회의 형식이나 지지율에 따라 후보들이 사용하는 설득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경선 기간에 발생한 주요 사건이나 토론 주제, 경선 진행 방식을 함께 살펴보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설득전략의 유형과 유권자 반응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는 본경선 초반 박용진 후보와의 1:1 토론 후, 함께 경선에 참여하는 다른 후보들과도 여러 방식의 대화와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선 초반 선거운영 방식을 두고 후보자간 합의를 찾지 못해 1차 예비경선에서는 토론을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토론회 대신 개최된 비전 및 경선 공약 발표회에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토론회 결렬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기초단체의원 선거에서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선거방송토론회는 이제 정례행사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늘 후보자 간 이견이 대립한다. 토론회를 하기로 합의하더라도 토론형식의 세부사항을 조율하거나 방송사 및 사회자를 선정하는 데 난항을 겪기도 한다. 또한 어떤 후보들은 낮은 시청률을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해석하여 선거방송토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거방송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진면목을 파악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핵심 통로임에는 분명하며, 대통령 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거의 경선 과정에서는 토론이 더욱 많이 열리고 중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안명규·류정호(2007)의 연구에서처럼 정치대화도 정치참여에 해당한다면, 정치대화의 장을 확보하는 것은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주목하는 현상이 일상회복 이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솔직한 반응을 관찰하며 토론회에 대한 단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사보다 중계의 제약이 적은데다, 유권자들이 실시간 채팅에 참여할 수도 있고, 토론회와 실시간 채팅을 함께 시청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토론양상과 설득전략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반응을 보이는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를 통해 후보자들이 원하는 토론형식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토론과 토론형식에 대한 단서를 얻고자 하였다.

선거방송토론이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는 토론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김관규·박연진, 2018; 김춘식, 2004). 특히 후보자들이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론회에서 자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략이 이번 20대 대선토론에서 실제로 활용 빈도가 높은지, 유권자들은 특정 설득전략과,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토론에 충실한 설득전략이 주로 사용되는 시간에 실시간 채팅에서 유권자 간 토론이 관찰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설득전략

과 선거방송토론의 효용성 및 정치대화의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유튜브의 활용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양 정당 토론회의 형식적 특징이나 공통점·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유권자에게 유용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한 적절한 토론형식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에서 중계되는 대선후보 토론회 및 실시간 채팅 기록을 분석하였다. 베노이트의 기능이론을 바탕으로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주장, 공격, 방어로 대표되는 설득전략 중 어느 유형의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후보자가 사용한 설득전략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양상의 대화를 나누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실험상황 설계나 설문조사 등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실시간 채팅기록을 분석하면서 유권자들의 여과되지 않은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유권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였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대체로 지지율에 비례하여 채팅 점유율이 나타났고, 특정 후보나 유권자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댓글도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열기가 과도해질 때는 중재를 요청하는 반응도 관찰되는 등, 이번 토론회에서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매우 성숙한 대화 태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댓글에 비해서는 실시간 채팅에 게시된 문장에서 숙의성이나 문장 완결성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다. 연구를 통해 유권자의 실제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실험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변인 통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사용된 반응이 전체 유권자의 반응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유권자 반응 수에 비해 세부 반응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실시간 채팅에서 유권자의 토론

흐름이 목격되지 않아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동조나 맞비난 중심의 반응 속에서 반박이나 지원 등 논리성을 띤 반응들도 다수 관찰되었지만,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다수의 유권자가 일시에 각자 토론회에 대한 반응을 게시하는 상황에서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시간 채팅에서 토론이나 대화를 하고 싶었던 유권자들이 추후 댓글을 통해서라도 숙의성을 갖춘 대화나 토론을 나누었는지 추적하기 어려웠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도중 유권자의 반응이 게시되는 속도나 실시간 시청자 수에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현상의 원인이 후보자의 발언 내용 때문인지, 일부 유권자들의 행태 때문인지, 또는 토론회 진행 방식의 문제였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참고문헌

강내원 (2004). 인터넷과 대중매체 이용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대 집단간 비교. 「한국언론학보」, 48(3), 116-143.

곽정원·정성은 (2013). 정치 팟캐스트의 제삼자 지각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영향력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1), 138-162.

구교태·김관규·이준웅(2006). 선거방송토론의 효과에 대한 연구: 2006년 대구시장 후보 토론방송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2), 203-225.

김경모, 송현진 (2011). 메시지 품질과 토론 연결망의 구조적 위치, 그리고 여론지도력. 「한국언론정보학보」, 56, 194-218.

김관규·구교태·이준웅(2006). 후보의 텔레비전토론 효과연구: 2006년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4), 51-88.

김관규·김춘식 (2008). 2007년(제17대) 대통령선거 TV토론의 설득적 전략 분석. 「언론과학연구」, 8(2), 51-83.

김관규·박연진 (2007). TV토론에서의 후보지지도와 토론 포맷에 따른 설득전략 차이: 설득적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3), 47-87.

김관규·박연진 (2011). 2010년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의 설득전략 분석. 「언론과학연구」 11(4), 68-102.

김관규, 박연진 (2017). 한국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에 나타난 후보자 설득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 24(4), 7-34.

김관규, 박연진 (2018). 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설득전략 분석. 「언론과학연구」 18(2), 35-69.

김동윤 (2007).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 의견의 질, 그리고 시민참여.「한국언론학보」, 51(6), 138-167.

김동윤, 김위근, 조민규 (2015).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 의견지도자와 이용자의 의견표명.「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2(3), 123-170.

김수정, 정연구 (2017). 정치성향, 뉴스 미디어 이용, 정치대화가 정치참여 태도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한국언론학보」, 61(5), 69-101

김은이 (2013). 온라인과 SNS 사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대인간 대화와 정치 효능감을 매개변수로.「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31, 31-62.

김주환 (2001). 뉴스매체의 사용과 정치에 대한 사적 대화가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2), 86-116.

김진영 (2006).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관한 미디어의 차별적 효과와 미디어 이용, 대인커뮤니케이션, 투표참여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2, 113-146.

김춘식 (2012). 전통미디어와 대화를 통한 정치정보 습득이 정치 신뢰와 미디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유권자의 인터넷 이용 동기와 인터넷 정치정보노출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4), 389-413.

김춘식·김관규·이영화 (2008). 2007년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토론에 나타난 후보자의 캠페인 수사 분석. 「방송통신연구」 66, 131-159.

김춘식·송종길·이민규·전영란 (2004).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TV 토론 수사분석: Benoit의 정치캠페인 수사분석틀 적용.「방송문화연구」, 16(2), 139-171.

김현석, 이준웅 (2007). 인터넷 정치 토론의 이야기 속성. 「한국언론학보」, 51(6), 168-196.

노성종·민영 (2009). 숙의와 참여의 공존. 「한국언론학보」, 53(3), 173-197.

노정규·민영 (2012). 정치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효과: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2), 226-248.

문성철·양문희 (2009). 대통령 선거 토론 프로그램 시청이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방송학보」, 23(1), 13-168.
민영 (2008). 뉴스미디어, 캠페인 미디어, 그리고 정치 대화가 후보자 이미지와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4, 108-143.
민영 (2015). 정치 풍자와 참여적 시민성: 정치 팟캐스트 이용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효과. 「한국방송학보」, 29(3), 36-69.
박기령·김재영 (2014). 제18대 대통령후보 TV토론에 나타난 후보자들의 수사분석.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3, 107-138.
박연진·김관규 (2014). TV토론의 후보자 설득 전략과 효과에 관한 연구: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TV토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4(4), 77-105.
박연진, 김관규 (2016). 선거방송토론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설득전략. 「방송문화연구」, 28(1), 121-152.
박연진, 김관규 (2016). 선거방송토론이 후보자 호감도와 지지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6(4), 5-40.
박정서 (2012). 청소년의 정보추구 정치참여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청소년학연구」, 19(10), 45-71.
송종길 (2004). 2002년 대통령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나타난 수사학적 토론전략 연구. 「한국언론학보」, 48(2), 108-137.
송종길·박상호 (2009). 17대 대통령 후보 TV토론이 유권자의 태도변화 및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언론학보」, 53(6), 87-103.
신경아·김정은·한미정 (2018).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 의도를 이끄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치대화와 투표자 우대제도, 내재적·외재적 정치효능감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2(5), 1-29.
안명규·류정호 (2007). 인터넷 정치참여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3, 113-148.

양승찬 (1998). 사회시스템 성격을 고려한 침묵의 나선 이론 연구: 의견 분위기 지각과 공개적인 의견표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0, 72-116.

양승찬 (1999). 텔레비전 선거토론 방송의 영향력 연구: 후보자 평가 변화, 정책관련지식, 정치과정 참여를 중심으로.「방송연구」, 48, 210-246.

양승찬 (2003). 대통령 선거와 미디어. 한국언론재단.

양승찬·서희정 (2013).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에 대한 여론 분위기 지각과 감정 반응이 유권자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언론과학연구」, 13(2), 227-260.

양승찬, 이미나, 신지희 (2018). 지지후보에 대한 의견 분위기 지각이 공개적 의견 표명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사회과학논총」, 21(1), 107-129.

오대영 (2018). 유튜브 정치동영상 이용이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학습효과: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정치참여를 중심으로.「교육문화연구」, 24(1), 97-115.

우지숙, 김한솔, 안준규 (2017). TV토론 보도와 정책선거: 제19대 대선토론 방송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5(4), 81-124.

이강형 (2004). 대통령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 후보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토론회 패널 조사 연구. 「한국언론학보」, 48(2), 346-372.

이강형·김춘식·양승찬·권혁남 (2004). 후보 결정에 대한 TV 토론의 영향력에 있어서 정치 환경의 역할: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캠페인. 「한국방송학보」, 18(3), 51-90.

이병혜 (2013).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집단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30, 319-353.

이수범·김용준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TV토론의 설득전략 연구. 「선거연구」, 8(1), 37-57

이수범·김동우 (2012).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이용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홍보학연구」, 16(1), 78-111.

이승훈·김상돈 (2009). 인터넷과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탐색적 논의: 인터넷 이용 형태와 온라인 정치참여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1), 31-58.

이정기·금현수 (2012). 정치 팟캐스트 이용이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대의 정치 팟캐스트 이용동기, 정치심리변인, 온·오프라인 정치참여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5), 163-189.

이준웅 (1999). 텔레비전 토론의 정치적 영향력. 「한국방송학보」, 12, 253-297.

이준웅 (2003). 후보 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설명: 15대 대선거방송토론이 후보자 호감도와 지지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2), 243-284.

이준웅·김은미 (2006). 인터넷 게시판 토론과 정치토론 효능감. 「한국언론학보」, 50(3), 393-423.

이준웅, 김은미, 김현석 (2007). 누가 인터넷 토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한국언론학보」, 51(3), 358-384.

이철한 (2013). 정치담론의 기능적 분석연구: 2011년 서울시장 선거 텔레비전 토론.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30, 159-185.

이한수 (2018).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유권자 평가 분석.「미래정치연구」, 8(3), 5-33

장석준 (2020). 정치 유튜브방송 이용과 정치대화,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간의 영향 관계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57, 89-132.

정낙원, 김성욱 (2015). 소셜미디어에서 의견 일치/불일치 대상과의 정치 토론이 가지는 정치적 효과 연구: 시각 다양성 인식, 정보습득감, 정치적 참여, 관심도, 지식, 효능감 변인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38, 73-112.

정인태 (2014). 유권자들의 소셜미디어 활용 정도가 투표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8(4), 239-278.

조성동·나은경 (2011). 매체의 이용 장르와 기능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심리 및 사회자본 변인의 역할을 고려하여.「한국방송학보」, 25(1), 242-286.

최윤정 (2009). 온라인 커뮤니티 속 오피니언 리더 집단 검증. 「한국언론학보」, 53(4), 372-394.

최정화 (2012). SNS이용이 대학생들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7, 369-408.

황용석 (2001). 인터넷 이용과 정치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제16대 총선 기간동안 인터넷 정치사이트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3), 421-459.

Abramowitz, A. I. (1978). The Impact of a Presidential Debate on Voter Rational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3), 680-690.

Ahuja, M. K., & Carley, K. M. (1999). Network structure in virtual organizations. *Organization Science*, 10(6), 741-757.

Almond, G. A., & Verba, S.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Anderson, M. R. (2010). Community Psychology,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Political Psychology*, 31(1), 51-84.

Bem, D. J. (1967). Self-perception: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cognitive dissonance phenomena. *Psychological Review*, 74(3), 183-200.

Benoit, W. L. (2006). The Functional Theory of Political Campaign Discourse. Proceedings of Ural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Linguistics. 18, 10-34.

Benoit, W. L. (2007). *Communication in political campaigns.* New York, NY: Peter Lang.

Benoit, W. L., & Brazeal, L. M. (2002). A Functional Analysis of the 1988 Bush-Dukakis Presidential Debates. *Argumentation & Advocacy*, 38, 219-233.

Benoit, W. L., & Currie, H. (2001). Inaccuracies in media coverage of the 1966 and 2000 presidential debates. *Argumentation & Advocacy*, 33, 28-39.

Benoit, W. L., & Harthcock, A. (1999). Functions of the great debates: Acclaims, attacks, and defenses in the 1960 presidential debates. *Communication Monographs*, 66, 341-357.

Benoit, W. L., & Glenn J. Hansen. (2004). Presidential Debate Watching, Issue Knowledge, Character Evaluation, and Vote Choi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0(1), 121-144.

Benoit, W. L., & Sheafer, T. (2006). The Functional Theory of Political Campaign Discourse: Televised Debates in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3(2), 281-297.

Benoit, W. L., & Wells, W. T. (1996). *Candidates in conflict: Persuasive attack and defence in the 1992 Presidential debates.* Tuscaloosa 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Campbell, S. W., & Kwak, N. (2010). Mobile Communication and Civic Life: Linking Patterns of Use to Civic and Political Engag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60(3), 536-555.

Carlin, D. B. (2000). Watching the debates: A guide for viewers. In S. Coleman (Ed.), *Televised election debat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157-177). New York: St. Martin's Press.

Castells, M.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elli Carpini, M. X., Cook, F. L., & Jacobs, L. R. (2004). Public deliberation, discursive participation, and citizen engagement: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7, 315-344.

Evans, M. (2016). Information dissemination in new media; YouTube and the Israeli-Palestinian comflict, *Media, War & Conflict*, 9(3), 325-343.

Faucheux, R. A. (2002). What voters think about political debates: Key findings from a nationwide voter poll. *Campaigns & Elections*, June, 22-26.

Geer, J. G. (1988). The Effects on Presidential Debates on the Electorate's Preference on Candidates. *American Politics Quarterly*, 16, 486-501.

Glynn, C. J., & McLeod, J. M.(1984). Public opinion du jour: An examination of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8(4), 731-740.

Hardy, B. W., & Scheufele, D. A. (2005). Examining Differential Gains from Internet Use: Comparing the Moderating Role of Talk and Online Interac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55(1), 71-84.

Hayes, R. A. (2009). *New Media, New Politics: Political Learning Efficacy and the Examination of Uses of Social Network Sites for Political Engagement*.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Michigan State University.

Hoffman, L. H., & Thomson, T. L. (2009). The Effect of Television Viewing on Adolescents' Civi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as a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3(1), 3-21.

Huntington, S. P., & Nelson, J. M.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Jamieson, K. H., & David, S. B. (1988). *Presidential Debates: The Challenge of Creating an Informed Elector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Jenkins, H.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Katz, C., & Baldassare, M. (1992). Using the "L-Word" in public: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in conservative orange county. California, *Public Opinion Quarterly*, 56(2), 232-235.

Lang, G. E., & Lang, K. (1984).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Direct and Mediated Effects of the First Debate. In G. F. Bishop, R. G. Meadow, & M. Jacson Beeck,(Eds.), *The Presidential Debates: Media, Electoral, and Policy Perspectives* (pp. 61-80). New York: Praeger.

Lanoue, D. J., & Schrott, P. R. (1989). The Effects of Primary Season Debates on Public Opinion, *Political Behavior,* 11, 289-306.

Lazarsfeld, P. F., Berelson, B., & Gaudet, H. (1944).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Lee, Han Soo., & Lee, Jae Mook. (2015).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nd Learning in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Does Political Knowledge Condition Information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9, 1-20.

Lee, H., Oshita, T., Oh, H., & Hove, T. (2014). When Do People Speak Out? Integrating the Spiral of Silence and the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26, 185-219.

May, A. L. (2010). Who Tube? How YouTube's news and politics space is going mainstream.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5(4), 499-511.

McClurg, S. (2006). The Electoral Relevance of Political Talk: Examining Disagreement and Expertise Effects in Social Networks on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3), 737-754.

McKinney, M. S., & Warner, B. R. (2013). Do Presidential Debates Matter?: Examining a Decade of Campaign Debate Effects. *Argumentation & Advocacy*, 49, 238-258.

McLeod, J. M., Scheufele, D. A., & Moy, P. (1999). Community,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The Role of Mass Media and Interpersonal Discussion in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6, 315-336.

Mendelberg, T. (2002). The Deliberative Citizen: Theory and Evidence. In M. X. Delli Carpini, L. Huddy & R. Y. Shapiro (Eds.), *Political Decision Making,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Research in Micropolitics* (Vol. 6, pp. 151-193). Greenwich, CT: JAI Press.

Mutz, D. C. (2002). Cross-cutting social networks: Testing democratic theory in pract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111-126.

Mutz, D. C. (2006). *Hearing the other side: deliberative versus participatory democrac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tz, D. C., & Martin, P. S. (2001). Facilitating Communication across Lines of Political Difference: The Role of Mass Medi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1). 97-114.

Nisbert, M. C., & Scheufele, D. A. (2004). Political Talk as a Catalyst for Online Citizenship.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4), 877-896.

Noelle-Neumann, E. (1977). Turbulences in the Climate of Opinion: Methodological Applications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Public Opinion Quarterly*, 41(2), 143-158.

Norris, P.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ntti, M. (2015). Grassroots humanitarianism on Youtube: Ordinary fundraisers, unlikely donors and global solidarity.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7(7), 622-636.

Pingree, R. J. (2007). How Messages Affect Their Senders: A More General Model of Message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Deliberation. *Communication Theory*, 17(4), 439-461.

Rojas, H., Shah, D. V., Cho, J., Schmierbach, M., Keum, H., & Gil-de-Zuniga, H. (2005). Media dialogue: Perceiving and addressing community problem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8(2), 93-110.

Scheufele, D. A., & Moy, P. (2000). Twenty-five years of the spiral of silence: A conceptual review and empirical outlook.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2(1), 3-28.

Scheufele, D. A, Nisbert, M. C., & Brossard, D. (2003). Pathways to Participation? Religion, Communication Contexts and Mass Medi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5(3), 300-324.

Shah, D. V., & Scheufele, D. A. (2006). Explicating Opinion Leadership: Nonpolitical Dispositions, Information Consumption and Civic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s*, 23, 1-22.

Shah, D. V., Cho, J., Eveland, W. P., & Kwak, N. (2005). Information and Expression in a Digital Age: Modeling Internet effects on Civic Particip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2(5), 531-565.

Valenzuela, S., Park, N., & Kee, K. F. (2009). Is There Social Capital in a Social Network Site?: Facebook Use and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Tru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 857-901.

Verba, S., & Nie, N.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Verba, S., Schlozman, K. L., & Brady, H. (1995). *Voice and equality: civil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Vitak, J., Zube, P., Smock, A., Ellison, N., & Lampe, C. (2011). It's complicated: Facebook user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2008 ele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3), 107-114.

Weimann, G., Tustin, D. H., van Vuuren, D., & Joubert, J. P. R. (2007). Looking for opinion leaders: Traditional vs. Modern measures in traditional socie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9(2), 173-190.

Yawn, M., & Beatty, B. (2000). Debate-induced Opinion Change What Matter?.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8(2), 270-285.

Abstract

A Functional Analysis of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 and Voter Response in the YouTube Live Chat

Sol Je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n the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of the two parties in South Korea: the ruling Democratic Party and its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Based on Benoit's functional theory, analyzed statements of candidates in the debates, categorized voter response in the YouTube live chat. Acclaims were most preferred strategy amid candidates, attacks the second, defenses the least, respectively the voter response on the strategies. Voter responses were sorted as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Overall, acclaims were more common strategy over attacks and defenses. Candidates managed to use acclaims not just when discussing general

goals or ideas but even in dispute. Both parties continuously had been asking the candidates to keep their manners in the primary, and to respect the contenders for the team. Also, in this presidential campaign, voters of the both sides strongly demanded the candidates fair competition and mutual respect. Winning the presidential race was the greater good for both parties, there was a tendency amongst voters to back the candidate who was most likely to win. Any comments or actions might provoke the leading candidate or its supporters were condemned. Imputing comments on the frontrunner in the debates were not welcomed. Voters blamed the candidate who used attacks on the frontrunner, whether his argument was plausible. Therefore, contending candidates tried not to use attacks as possible, same as defenses. Voters acted like an audience in the YouTube live chat. Sometimes they assembled as an interest group, or stayed as an individual spectator, supported or blamed the candidates, and showed emotional response on the agenda. While the debate was on air through the YouTube channels, voters typewrote hundreds and thousands of messages on the live chat. Some voters tried to start a conversation, but messages were uploaded so fast at the same time that it was hard to be matched. Instead, a couple of topic threads were found in the user comments; when a voter left a comment about the debate, another user reviewed and replied to the message, then a conversation thread formed. Relatively more deliberate messages were found compared to those in the live chat, comments can be employed as a source for analyzing voter response later on.

Keywords :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 Functional Analysis, Voter Response, YouTube, Political Communication

Student Number : 2013-21911